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74호 【루계 제24852호】 주체104(2015)년 3월 15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공동구호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언제와 발전기실구조물공사 90%계선 돌파, 3개 발전소의 발전기조립 완성, 송전선로 기본적으로 형성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이 계속 본격적으로 다그쳐져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하고있다.

현장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말현재 기본지표들인 굴착과 성토공사는 각각 93%이상, 타입공사는 87%이상 수행되여 루계적인 구조물총공사과제를 일정계획보다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특히 이 기간 수문식발전소건설에서 관건적인 공사대상인 언제 및 취수구수문기둥은 110여개나 완성되고 330여개의 다리보와 방대한 개수의 상판부재설치공사가 추진되여 언제건설의 돌파구가 자랑스럽게 열리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또한 9개 발전소의 발전기실하부구조물공사가 완성되고 8개 발전소의 발전기실건물축조와 천정기중기보조립공사가 기본적으로 수행되였다. 희천7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이미 두기의 발전기가 가동시험을 거쳐 전력생산에 들어갔다. 희천8호와 9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여러기의 발전기본체조립이 끝나고 희천5호와 3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발전기들의 본체조립이 각각 50%, 30%계선을 돌파하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송전선건설부문에서는 수백기의 철탑세우기, 수십리구간의 2회선늘이기공사까지 전부 끝나 송전선로가 형성되였으며 모든 건설장들에서 마감건설대상인 옥외변전소공사가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집단적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이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대로 청천강을 하루빨리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려는 전체 발전소건설자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결사관철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현장지휘부에서는 지난해에 구조물총공사량의 85%과제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년초부터 언제와 발전기실, 송전선건설 등 남은 공사과제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내밀어왔다.

지휘부정치일군들은 정초부터 전반적인 공사단위들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전으로 언제와 발전기실을 비롯한 남은 구조물공사를 최대한 다그쳐 끝내도록 전투목표를 갱신하게 하고 그 실현을 위한 올해의 첫 통나무집중수송전, 공사가 앞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 설비생산단위들에 대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실효성있게 조직하는 등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갔다.

특히 각 단위들에서 겨울철의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언제를 비롯한 구조물 및 토목공사를 확고히 앞세워 설비조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이 과정에 높이 내세운 현장지휘부적인 1월과 2월전투과제들이 넘쳐 수행되고 구조물공사성과는 더욱 확대되였다.

우선 언제공사를 완벽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희천9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양시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방대한 언제수문설치공사를 수문권양기중기가 들어오는 차제로 전격적으로 해제낄통이 큰 목표밑에 강바닥정리굴착, 운영건물과 종업원살림집건설 등을 다그치면서 화학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의 협동하에 수문부분품들의 지상확대조립전투를 줄기차게 벌리였다.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진 맹세지켜 발전소건설을 남먼저 끝낸 열의밑에 기중기가동률을 높이고 앞선 공법들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투쟁을 벌려 수문설치공사에 진입할수 있는 전망을 확고히 열어놓았다.

희천5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황해남도려단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추진중에 있던 100여개의 다리보설치를 위한 공사를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여느 단위들에 비하여 2배나 되는 힘겨운 다리보설치과제였지만 이들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공사를 내밀어 올해에 들어와 전부 끝내고 련이어 수십개의 상판부재설치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희천8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안남도려단에서는 이미 수문기둥과 다리보설치공사를 전부 끝낸 성과에 토대하여 년초부터 수문정점과 권양기중기선로의 타입공사를 본때있게 다그치였으며 희천4호발전소건설을 맡은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전투원들도 미진된 수문기둥타입, 다리보설치공사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희천6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안북도려단 전투원들은 올해 정초부터 절기에 구애됨이 없이 남은 무넘이구조물타입을 앞세우고 수문틀설치와 다리보설치공사를 전부 끝내여 수문권양기중기선로타입공사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희천11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함경남도려단 전투원들은 년초부터 남은 한개의 수문기둥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전구간의 수문기둥쌓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희천12호발전소 언제건설을 맡은 남포시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맵짠 날씨가 지속되고 력량이 적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6개 언제수문기둥정점에 여러겹의 보온재를 설치하고 가열된 혼합물을 리용하여 련속콩크리트치기를 들이대였으며 다리보설치를 위한 여러차례의 물길돌리기, 수문틀설치공사 등을 립체적으로 벌리고있다.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중요공사대상인 발전기실건설에서도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발전기실공사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전체 건설자들의 눈부신 투쟁에 의하여 이미 지난해말 희천11호발전소건설장을 제외한 모든 건설장들에서 발전기실하부구조물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평양시, 평안남도, 철도성, 황해남도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발전기실건물축조와 천정기중기설치 등 발전기실공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발전기조립을 다그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이에 토대하여 년초부터 발전기가 들어오는족족 설치하기 위한 수력설비조립사업소 전투원들과 해당 단위 돌격대원들의 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있다.

희천3호발전소건설을 맡은 자강도려단에서는 어려운 공사대상인 물길굴공사를 힘있게 다그치면서 수력설비조립사업소와의 련계밑에 발전기조립을 내밀어 본체조립실적을 높이였으며 희천10호와 4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건물축조와 천정기중기조립, 지붕공사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고 희천6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발전기실건물축조와 천정기중기조립이 완성되였다.

희천12호발전소 발전기실공사를 맡은 태천수력발전건설사업소 전투원들도 여느 단위들보다 공사량이 많은 하부구조물공사에 이어 년초부터 부재조립에 의한 발전기실건물축조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침으로써 머지않아 건물공사를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언제, 발전기실공사와 함께 물고기길, 방수로, 강바닥정리굴착과 운영건물, 종업원살림집건설 등 마감공사대상들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미 함경남도려단을 비롯한 전반적인 건설단위들에서 물고기길과 방수로공사를 끝냈거나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고있으며 평양시려단에서는 강바닥정리굴착공사, 운영건물과 13동의 종업원살림집축조, 지붕씌우기과제를 완성하였다.

평안남도려단에서는 방대한 강바닥정리굴착공사를 기본적으로 수행하였고 함경남도려단에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무려 3만 수천㎥의 강바닥정리굴착과제를 해제끼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황해남도, 남포시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운영건물과 종업원살림집건설에 착수하여 기초공사와 건물축조공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발전소건설과 동시에 송전선공사를 마감짓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공사에 동원된 평안북도, 자강도, 평양시, 함경북도대대를 비롯한 전력공업성려단안의 각 대대 전투원들은 송전선건설을 확고히 앞세울 열의밑에 떨쳐나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부지정리와 기초공사를 선행하고 변압기를 비롯한 설비들이 생산확보되는족족 기동적으로 운반설치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공사실적을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의 요구대로 당창건 일흔돐까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훌륭히 완공할 한마음안고 공사장마다에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가고있는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눈부신 투쟁에 의하여 발전소건설은 계속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류기풍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더욱 고조되는 교육지원열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교육사업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습니다.》

평양시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중시,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에서는 삼흥중학교, 대성구역 5월13일룡남고급중학교를 비롯하여 우리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학교, 유치원들을 더 잘 꾸리는데 우선적인 힘을 넣으면서 새로 개건확장되는 사동구역 장천고급중학교 등 시안의 모든 학교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학교들과 유치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서도 평양시가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도록 구역, 군책임일군들과 후원단체일군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며 시당위원회일군들을 비롯하여 시와 구역, 군급기관 일군들이 시안의 학교들을 맡아가지고 현지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여러 구역, 군들에서 교육지원사업이 활기있게 벌어져 학교건설과 개건보수,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들을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교육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온 나라에 일어번지는 교육지원열풍은 3월학교지원월간을 맞으며 더욱 고조되고있다.

중구역, 만경대구역의 일군들은 로력조직과 자재보장사업을 짜고들어 중구역 련광고급중학교, 삼흥중학교 등의 개건공사를 힘있게 밀어주었다.

삼석구역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자욱이 새겨진 삼석구역 장수원고급중학교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주고 많은 교구비품들과 교육설비들을 마련해주어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들로 꾸릴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삼석구역 삼석고급중학교를 비롯하여 구역의 여러 학교들의 개건보수공사를 짧은 기간에 다그쳐 끝내였다.

대성구역, 형제산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역, 군들에서도 교육지원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다.

인재양성을 나무를 키우는데 비유한다면 교육은 토양과 같고 교육조건과 환경은 거름과 같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마음에 받들려 지금 시적으로 학교건설과 개건보수공사들이 마감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으며 모든 학교들에 다기능화된 교실들을 갖추어주기 위한 지원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평안북도의 시, 군들에서

평안북도의 많은 시, 군들에서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전반적인 교육기관들의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짜고들고있다.

특히 3월학교지원월간을 맞으며 태천군, 곽산군, 운산군, 염주군, 구성시를 비롯한 많은 시, 군들에서는 교육기관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교육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으며 후원단체들이 책임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태천군의 책임일군들은 학교들에 자주 나가 보다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 군에서는 많은 품을 들여 읍지구 학교들에서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게 70여대의 액정텔레비죤과 태양빛전지판 등을 해결해주었으며 군안의 모범적인 교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고 교원들을 우대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 사람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곽산군에서도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세멘트, 목재, 강재 등을 보장해주고 수많은 학교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해주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훌륭히 집행되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후원단체들이 수십개의 학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속있게 잘하도록 이끌어주어 교원들과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운산군과 염주군의 책임일군들은 군안의 학교, 유치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설비, 자금과 로력보장, 학교후원단체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정형을 주, 월별로 장악총화하면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일군들은 교육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즉시 현장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세워나가고있으며 교원들이 교육사업에 전심할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고있다.

아직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학교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도안의 많은 시,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교육기관들의 모습은 나날이 변모되여가고있으며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사업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황해북도의 농촌리들에서

황해북도의 농촌리들에서 자기 고장의 미래인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학교들을 잘 도와주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사리원시, 신평군, 수안군, 황주군, 상원군의 리당조직들이 지난해말부터 교육지원사업을 꾸준히 밀고나감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사리원시 미곡리에서는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미곡고급중학교 교육사업의 현대화, 정보화를 위해 모든 교실마다 액정텔레비죤, 축전지 등을 갖추어주었으며 29종에 수백점에 달하는 식료실습기재들을 마련해주어 기초기술실습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교원들도 두가 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생활조건보장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3월학교지원월간에 리에서는 또다시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학교개건보수를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선정리에서도 로력과 자재보장을 앞세워 선정고급중학교의 지붕은 물론 모든 교사들의 개건보수를 다그쳐 끝냈으며 매 교실에 콤퓨터와 액정텔레비죤, 태양빛전지판 등을 갖추어주어 그 어떤 조건에서도 수업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학교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위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과일나무들을 해결해주었다.

지금 시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는 당면한 농사일을 다그치면서도 교육사업을 중요한 국사로 여기고 교육지원사업을 잘하고있다.

수안군 신대리, 수덕리, 룡포리 등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온갖 예비를 탐구동원하여 학교들을 적극 도와주고있다. 교육의 정보화실현에 필요한 설비들과 기재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학교의 개건보수를 적극 다그쳐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일신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황주군 석산리에서도 석산고급중학교, 석산소학교의 개건보수와 유치원건설에 필요한 많은 건설자재들을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리안의 교육자들을 당의 교육정책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본사기자

군민협동작전의 위력 힘있게 과시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건설장에서

강원땅에서 원아들의 사랑의 보금자리로 일떠서는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이 군인건설자들에 의하여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발맞추어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면하게 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의 하부망건설과 지대정리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하부망건설과 지대정리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흥망과 혁명의 장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2월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군민이 힘을 합쳐 육아원, 애육원건설은 태양절까지, 초등학원과 중등학원건설은 전승절까지 끝낼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는것을 체질화한 군인건설자들은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맡은 공사과제수행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건설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본보기답게 자랑찬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본받아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공사과제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건설지휘부에서는 선전선동수단들을 총집중시켜 사상의 포문을 열고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집중포화를 들이대고있다. 이와 함께 대상별,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온 공사장이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육아원, 애육원지구의 하부망공사와 지대정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맞게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세우고 모든 단위들에서 그날과제를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전투지휘를 잘해나갔다.

하부망공사를 맡은 단위들에서 조선속도창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적극 다그치고있다.

지열랭난방체계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물보장을 맡은 원산화학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의 은정이 원아들에게 하루빨리 가닿도록 할 일념을 안고 맡은 과제수행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뽐프와 권양기를 비롯한 공사에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수백㎥의 굴착과 침강정콩크리트타입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원산항의 일군들은 공사과제를 분담받은 즉시 현장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맡은 구간에 대한 오수함도랑굴착과 콩크리트치기를 5일동안에 해제끼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원산시안의 시급기관들에서 달려나온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설계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육아원, 애육원의 지대정리와 나무심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서는 운수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넓은 면적에서 막돌과 자갈깔기, 모래펴기를 질적으로 진행하였다.

도청년동맹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심고 주인답게 관리하여 공사장주변의 풍치를 한껏 돋구고있다.

세길지구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 대한 개건보수와 새로 일떠세울 살림집건설을 맡은 단위들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원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키우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맡은 대상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당의 은정속에 일떠서고있는 육아원, 애육원의 주변환경은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몰라보게 변모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물고기잡이 시작

황해남도의 수산부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출어준비를 실속있게 갖추어온 황해남도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일제히 바다에 진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수산정책관철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도수산관리국과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일군들은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수산부문아래 각 수산물생산단위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도수산관리국아래 해주수산사업소와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의 사연수산협동조합이 앞장에서 겨울철배수리와 어구준비를 잘하였다. 이곳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강추위속에서도 선체보수와 기관수리를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갔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들끓는 포구마다에서 그물뜨기를 비롯하여 출어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구월수산협동조합을 비롯한 도수산부문의 다른 수산물생산단위들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겨울철배수리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설비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해주선박수리공장을 비롯한 선박수리기지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공무기지의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며 배수리성과를 확대하였다.

출어시기가 다가오는데 맞게 각 수산물생산단위들에서는 집중적인 어로전투를 벌리기 위한 작전과 어황료해를 진행하는 한편 고기배들을 바다에 띄우기 위한 준비를 따라세웠다.

대중의 드높은 열의속에 지난 시기에 비하여 훨씬 앞당겨 물고기잡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춘 도수산관리국과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말 해주수산사업소와 사연수산협동조합에서 출어식을 진행하였다.

올해 높아진 수산물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포구를 떠나는 어로공들을 도의 책임일군들과 수산부문 일군들, 종업원들이 뜨겁게 바래주었다.

도수산부문의 일군들은 고기배들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어로전투를 전개하기 위한 주도세밀한 작전을 펼치면서 변화되는 어황조건에 맞는 과학적인 탐색을 조직하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 신의주방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신암땅이 전하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

로동이 그대로 노래로, 기쁨으로 되고있는 번영하는 내 나라, 내 조국!

창조의 불꽃날리는 공장에 가보아도 좋고 기름진 농장벌을 찾아도 좋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노래부르며 자기들의 손으로 행복을 가꾸고 미래를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들의 랑만에 넘친 모습과 창조와 로동속에 새로이 태여나는 사회주의선경들을 목격할수 있다.

하다면 이 땅에 희한하게 펼쳐지는 행복의 무릉도원, 천지개벽의 자랑찬 현실들은 어떻게 마련되는것인가.

얼마전 우리는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이 땅우에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지게 하고 누구에게나 창조의 열정과 생의 희열을 끝없이 안겨주는 영원한 생명수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룡천군 읍에서 서북쪽으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신암협동농장이 있다.

지난날 신암땅은 사람 못살 고장으로 사람들의 버림을 받던 곳이였다.

하지만 오늘의 신암땅은 누구나가 다 부러워하는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사회주의선경으로 천지개벽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마을로 나날이 일신되는 신암땅의 모습을 벅차게 안아보며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취가 뜨겁게 새겨진 전망대에 올랐다.

전망대에서 농장마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가슴은 저도모르게 세찬 흥분으로 설레이였다.

자를 대고 그은듯 한 큼직큼직한 규격포전들이 가없이 펼쳐진 신암벌,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아담하게 줄지어 서있는 농촌문화주택들…

바라볼수록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비상한 속도로 전진해나가는 내 조국의 거세찬 숨결이 그대로 안겨오는듯 싶었다.

농장의 전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곳 일군은 이야기하였다.

《만복을 노래하는 내 조국의 모습과 더불어 또 하나의 선군시대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희한하게 전변되여가는 우리 신암땅의 오늘을 생각할 때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어가신 헌신과 로고의 나날들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지군 합니다. 4년전의 그날도 바로 그러한 날들중의 하루였습니다.》

깊은 추억에 잠긴 일군의 눈굽은 어느새 축축히 젖고있었다.

주체100(2011)년 7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농장을 찾으시여 연혁소개실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시된 자료들을 보시며 농장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추억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지난날 락후와 빈궁만이 깃들었던 신암벌이 풍년나락 설레이는 행복한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과연 농장의 전변은 어떻게 시작되였는가.

일군의 추억은 이 땅에 전후복구건설의 노래소리드높던 주체45(1956)년 4월의 그날로 거슬러가고있었다.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셔야 하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이곳에 꾸려진 신창농업협동조합(당시)을 찾으시고 수수한 삿자리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조합원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을 높이는 한편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고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조합원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조합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속에 자기 발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은 신암땅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곳을 다녀가신 후 조합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조합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1960년대에 이르러 신암땅에서의 알곡생산량은 1950년대에 비해 훨씬 뛰여올랐다.

그후에도 신암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시기 위해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장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분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알곡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고 농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 놀라운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고 하시면서 농장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렇듯 자주 농장을 찾으시고 전국의 앞장에서 나아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정녕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우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과연 그 얼마이던가.

신암협동농장은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이 깃들어있는 농장인것만큼 농사를 더 잘 지어야 한다고 하시며 일군들을 만나주실 때면 그들의 가슴에 수령님의 유훈을 더욱 뜨겁게 새겨주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농장을 찾으시여 좋은 부침땅도 잘 다루어야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장의 부침땅가운데서 구불구불하고 작은 포전들은 1 000평규모로 다 정리하도록 하신분도,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좋은 품종의 알곡종자를 많이 심으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농사는 어디까지나 농업부문 일군들이 책임지고 하여야 한다고, 농사를 잘 짓는것은 농업부문 일군들에게 맡겨진 당적분공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신분도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언제인가 농장을 찾으시고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의 경쟁에서 아쉽게도 졌다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시고 경쟁에서는 이길수도 있고 질수도 있는것만큼 졌다고 락심할것은 없다고, 지난해에 미곡협동농장과의 경쟁에서 졌다고 하기때문에 신암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을 고무해주고 신심을 주기 위하여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왔다고,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경쟁을 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교시는 또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던가.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활짝 꽃피우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암협동농장을 찾고 또 찾으시여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신암땅은 해마다 몰라보게 변하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긴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토지정리를 잘하고 해마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수확고를 높이였으며 농촌문화주택도 많이 짓고 생산건물들도 새로 일떠세워 농장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농장이 해마다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모내기를 하고있는 자랑찬 성과도, 선진적인 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여 모판면적을 줄이고 많은 로력과 영농자재, 비료를 절약하면서도 풍작을 이룩할수 있은 비결도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영광의 이 땅에 보답의 구슬땀,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가렵니다.》

이곳 관리위원장의 불같은 결의는 신암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모두의 심정이였다.

농장원들모두가 올해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자체의 힘으로 축산기지를 새로 건설하고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나가고있는 사실, 작업반, 분조들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하고있는 사실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이들의 불타는 열의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주시고주신 사랑이 오늘도 영원한 자양분이 되여 포전들은 나날이 옥토로 전변되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펼치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설 한마음으로 영광의 땅에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신암땅사람들의 드높은 열정, 정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뿌리를 두고있어 그토록 뜨거운것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으로 빛을 뿌리고 수령님들의 숭고한 유훈을 결사관철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불타는 충정으로 더더욱 젊어지는 신암협동농장,

바로 여기에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신암땅의 천지개벽의 력사가 함축되여있고 보다 더 훌륭히 변천해갈 신암땅의 래일이 비껴있다는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신하였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유훈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불타는 충정이 있기에 신암땅은 지난해와 또 다르게 더더욱 천지개벽할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더듬으며

순간에 포착하신 문제

1970년대 중엽의 가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리용하실 장소를 돌아보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묵묵히 창문쪽으로 몸을 굽히시고 앉은 자세를 취하신채 한참동안 움직일줄 모르시였다.

(왜 그러실가?)

이윽고 그이께서는 의아해하는 일군들에게 창문턱이 이렇게 높으니 창밖의 풍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창문턱을 지내 높여 어버이수령님께 경치좋은 자연풍경을 제대로 보여드릴수 없게 한것은 수령님을 더 잘 모시려는 마음이 뜨겁지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무거운 자책으로 하여 얼굴을 들수 없었다. 그 장소를 꾸리면서 누구도 창문턱때문에 창밖의 풍경이 가리워진다는데 대해서 전혀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던것이다.

(우리는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가? …)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문제를 순간에 포착하신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턱을 없애야 방안에 앉아서도 좋은 경치와 저수지물을 내다볼수 있다고, 지금은 기본좌석에 앉아도 산만 보이지 저수지물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잘못을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창사이벽을 터치고 바닥까지 창문을 크게 내여 앞이 확 열리게 하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보살피심속에 그 장소는 훌륭하게 완성되였다.

그후 이곳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주 잘 꾸려졌다고 만족해하시면서 특히 전망이 좋고 앞이 탁 트인게 별세상같다고 여간만 기뻐하지 않으시였다.

각별히 관심하시며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2차회의가 진행되기 전이였다.

회의준비사업을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의시간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준비사업이 마지막단계에 이르러 첫날회의시간을 타산해보니 모두 한시간 좀 남짓이 걸리게 되여있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짧아진 회의시간을 두고도 만족을 모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회의를 지도하시게 되여있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회의시간을 1분이라도 더 단축하시기 위해 문건들을 다시금 깐깐히 살펴보시고 절차와 방법도 세심히 따져보시였다.

그러시다가 회의를 준비하는 일군에게 회의전반공정을 다시 알아보시면서 시간을 더 단축할 방도를 찾아주시였다.

며칠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2차회의가 열리였다.

회의는 예정했던 시간을 1분도 어김없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족어린 어조로 일군들에게 오늘 회의가 잘되였다고, 회의시간을 단축하느라 수고하였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단축된 회의시간은 모두 8분간밖에 안되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8분간을 위하여 바치신 날자는 무려 20일이였다.

그 나날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과 고심이 그 8분에 어려있었다.

본사기자

푸른 숲에 어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가는 참관자들 —문수봉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실속있게 진행되는 사상교양사업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의 내용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얼마전 한 갱에 내려간 초급당위원회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탄부들에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는것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이라는데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해주었다.

로농통신원 연전행

순간순간 빛나게

10월의 대축전장과 잇닿은 하루하루가 격동적으로 흐르고있다.

참으로 귀중한 한순간한순간의 련속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투쟁하며 전진하는 오늘의 우리 시대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순간순간 혁명을 위하여 심장을 뜨겁게 불태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간이 값있게 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순간을 살아도 값있게 살아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순간순간을 값있게 사는것은 자못 중요하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시내물은 큰강을 이루어도 맑고 깨끗하다.

값높은 삶의 순간순간이 합쳐져서 한생이 빛나는것이다.

노래에도 있듯이 마지막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날이 값있고 아름다운 생이다.

자기의 한생을 총화할 때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기쁜 마음으로 자부하게 되면 그것은 필경 참다운 인생이다.

하다면 인간의 가치란 무엇이며 값있는 삶이란 어떤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다는 리념이 뚜렷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훌륭한 창조물을 내놓는 인간의 삶은 고결하다.

당과 혁명앞에 끝없이 성실하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혁명열에 불타며 혁명가라는 존엄을 목숨으로 지킬줄 아는 그런 인간이 참다운 인간이며 그 생애 또한 값높은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 《생의 흔적》을 보시였다.

영웅의 안해가 자기의 한생을 보람있게 빛내이기 위하여 온갖 시련을 이겨내는 내용을 담은 영화,

영화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나는 아직까지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보기는 처음입니다. 영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정확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정치체계에서도 저런 영화는 나오지 못합니다. 조선에 저런 녀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것입니다. 인간의 한생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화를 보시고 그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신것은 한 녀성의 운명에 대한 깊은 리해와 함께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한생을 값높게 바치는 인간에 대한 열렬한 공감때문이시였다.

세월이 흘러간대도 수령의 추억속에, 당과 인민의 추억속에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이 땅에 생의 흔적을 남긴 사람, 바로 이런 인간이 한생의 순간순간을 값있게 산 사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의 한생이란 길지도 않다고, 사람은 아무때 가서나 어차피 생애를 마치기마련인데 무엇때문에 이 길지 않은 한생을 보람없이 지내겠는가, 살바에는 보람있고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인간이 보상할수 없는것이 있다면 시대와 력사앞에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이다.

삶의 리념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늘 시간이 모자라는 법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분초를 쪼개가며 헌신적으로 애쓰는 인간이 참된 충신, 애국자이다.

사람들의 사상, 충정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지만 그 결과를 보면 더 명백히 알수 있다.

로동자와 농민은 자기의 피와 땀이 슴배인 창조물로 자기의 조직사상생활을 총화하여야 하며 과학자, 기술자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절실한 가치있는 발명과 기술혁신으로 자기의 당성과 혁명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값높은 삶은 충정에 뿌리를 둔다.

충정이 높으면 노력의 열매가 풍성하고 그렇지 못하면 창조물의 질이 떨어지거나 량이 적어지기마련이다.

평가의 기준은 이렇게 서야 한다.

누구든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충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는 자각을 안고 오늘의 한순간한순간을 신념과 의리, 헌신에 살아야 한다.

승리의 10월로 향한 오늘의 순간순간을 빛나게 살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인간들의 심장은 순간순간 이렇게 고동쳐야 한다.

본사기자 량순

원아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집

우리는 얼마전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장을 찾았다.

그 어디를 둘러보나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자랑찬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과 강원도인민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골조공사가 끝나 자기의 자태를 완연히 드러낸 육아원과 애육원에서는 벌써부터 원아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다. 갖가지 유희시설들에서 마음껏 뛰여노는 그들의 모습도 보이는것만 같았다.

희한하게 꾸려진 새 집으로 이사할 날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고있을 원아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의 심정은 또 어떠하랴.

원아들만이 아니라 강원땅사람들 누구나 그날을 기다리고있다.

모든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아이들의 궁전이 원산시에서도 소리치며 일떠서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대로 응축된 행복의 요람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또 얼마나 힘차게 울릴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우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노래는 심장의 언어라고도 말할수 있다. 어른, 아이 할것없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부르는 노래야말로 어떤 가식이나 꾸밈도 모르는 가장 진실한 심장들에서 울려나올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과 로동당시대에 대한 가장 열렬한 례찬이 담겨져있는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바로 그런 노래들중의 하나이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이 노래이고 아이들이 있는 그 어디에나 이 노래제목이 새겨져있다.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부르는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행복의 노래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노래하는 송가이기도 하다.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 부모잃은 아이들의 마음에도 가없이 푸른 하늘을 펼쳐주고 랑만으로 가득찬 손풍금소리가 끝없이 울리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그 뜻을 안으시고 올해의 양력설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를 마치신 길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였다.

인사를 올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신년사를 하면서 나라의 귀여운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해주고보니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원아들이 더욱 보고싶었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마련된 희한한 새 집에서 양력설을 쇠고있는 원아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리도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였다.

원아들이 리용하는 방들을 차례로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음방으로 가시기 위하여 복도를 따라 걸으실 때였다.

앞에서는 육아원원아들이 줄을 맞추어 보육원을 따라 어느 한 방으로 들어가고있었다.

그런데 맨 나중에 걸어가던 한 어린이가 무심결에 뒤를 돌아다보고는 단번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알아뵈왔다.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 하고 어린이는 작은 목소리로 외우며 어린 마음에 어찌 해야 할지 망설이였다.

점점 멀어지는 동무들을 따라 걸음은 아장아장, 시야에서 놓치면 잃을듯 뒤로 돌린 고개,

육아원원아들이 비록 다섯손가락에도 다 꼽지 못할 어린 나이이지만 어찌 경애하는 원수님을 알아뵙지 못할수 있단 말인가.

이윽고 그 어린이가 들어간 방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달음에 달려와 안기는 원아들을 넓고넓은 한품에 따뜻이 안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부어주시는 원수님의 사랑, 이 세상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원아들이 이처럼 훌륭한 집에서 얼굴에 한점의 그늘도 없이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양력설을 쇠는것을 보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이곳에 와본 외국손님들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의 궁전에서 자기 아이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생활해보도록 하고싶은 간절한 심정을 터놓았었다.

사회주의제도가 아니였더라면 기껏해야 동정의 대상으로나 될번 한 부모없는 아이들이 만사람의 부러움속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제일 소리높이 부르고있는것이다.

이 세상 천만부모의 정과 열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육아원, 애육원의 보육원들과 교양원들에게 하신 당부는 그이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전하며 오늘도 뜨겁게 울리고있다.

보육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당의 사랑과 배려가 원아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할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속에서 훌륭한 과학자, 영웅, 군인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에게 창발성과 자립성, 독자성을 키워주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보고 듣는 모든것이 교양이 되고 생활의 모든 계기와 과정이 그대로 교양과정으로 되여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붙이고 옳바른 도덕품성을 키워주도록 할데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밥을 먹고 손을 씻으며 자기의 잠자리와 옷을 정돈하는 문제로부터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도록 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관심하시고 마음쓰시는 문제들은 끝이 없었다.

주변환경도 푸른 숲 설레이는 조국의 모습으로 원아들의 눈에 담아주시려 그이께서는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육아원, 애육원의 주변에 심은 나무 한그루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이 그대로 비껴있다.

이것이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에게만 베풀어진 사랑이겠는가.

전국의 모든 원아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드팀없는 의지이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에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은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장에도 뜨겁게 이어져있다.

원산시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새로 건설하도록 직접 발기하시고 인민군대가 강원도의 인민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원아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탁아소로부터 중학교 전과정을 마칠수 있도록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한축선상에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수많은 형성안들도 하나하나 지도해주시며 친부모도 다 줄수 없는 뜨거운 은정을 돌려주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그 극진하고 다심한 사랑과 정속에 원아들의 맑은 눈동자에 비끼게 될 주변의 산과 들, 거리와 마을들이 사회주의문명과 행복을 활짝 꽃피우며 더 훌륭히 변모되여가고있다.

내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당당한 역군들의 보금자리가 동해의 해안도시 원산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꾸며지고있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은 멀고 가까운것을 모르며 뜻하지 않게 마음속상처를 입은 자식일수록 더 따사롭게 감싸안아주고있다.

부모없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그늘까지 깡그리 가시여주는 당의 품은 진정 우리의 집이고 인민의 락원이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이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영원히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높이 울릴것이다.

본사기자 한영민

일군들은 다방면적인 지식과 모든 일을 척척 해제끼는 능력을 소유하자

혁명의 요구—박식가, 실력가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에게 보다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있다.

다방면적인 지식과 그 어떤 일도 막힘없이 척척 해제끼는 능력을 소유한 박식가, 실력가!

바로 이것이 혁명의 요구,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당일군의 징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면 정치가, 박식가가 되여야 합니다.》

당일군의 권위는 간판이나 직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다방면적인 지식과 그 어떤 일도 막힘없이 척척 해제끼는 능력을 지니는것은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당일군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없다. 직업과 지식정도, 나이와 생활경위가 각이한 사람들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하자면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로동자들과 사업하자면 공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농장원들과 담화하자면 농사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하며 작가, 예술인들과 마주앉자면 문학예술에 대한 안목이 넓어야 한다. 그래야 대상의 특성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사람과의 사업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다.

당일군이 다방면적인 지식과 그 어떤 일도 막힘없이 해내는 만능의 실력을 지니지 못하고서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으며 당정책관철에서 선봉에 설수 없다.

해당 부문에 대한 지식이 없고 기술을 모르면 아무리 현실에 나가 발이 닳도록 뛰여다녀도 걸린 고리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를 정확히 알수 없으며 모든 일에서 주견을 세우지 못하고 좌왕우왕하게 된다.

한날한시에 당정책을 접수하고 그 관철에 떨쳐나섰지만 어떤 단위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어떤 단위는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것은 전적으로 당책임일군들의 실력에 기인된다.

실력이 있어야 앞채를 멜수 있다. 당의 의도대로 버섯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자고 해도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고 축산을 본때있게 내밀자고 해도 그 부문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하며 단위의 면모를 일신시키자고 해도 건설에 조예가 깊어야 한다.

청진제강소 초급당비서 김영규동무는 실력가형의 당일군이다.

제강소의 곳곳에서 그의 높은 실력을 엿볼수 있다. 새로 특색있게 일떠서는 축산기지에 가면 건설공학에 밝은 당책임일군의 기발한 착상에 대한 이야기가 울려나오고 남새온실을 돌아보느라면 우리 당비서는 농학박사라는 종업원들의 경탄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무슨 일에서나 막히는것이 없는 일군, 맨주먹을 추켜들며 호소하는것이 아니라 비상한 실력으로 기술자들조차 생각지 못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일군, 바로 이것이 김영규동무에 대한 대중의 평가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박식가, 실력가가 되는것이 당일군의 자격문제와 잇닿아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높은 실력을 지니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습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일군들은 학습을 혁명가의 첫째가는 임무로 간주하고 자각적이며 일상적인 학습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면하게 제기된 바쁜 일을 해제낀 다음 통시간을 내여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학습을 뒤로 미루는것은 선후차를 옳게 가리지 못하는것이다. 당일군들은 학습을 떠난 실력, 실력을 떠난 사업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지식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기 위하여 허심하고 꾸준하게 배워야 한다.

그 어떤 일도 막힘없이 척척 해제끼는 능력은 일군의 실력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머리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에 활용할수 있는 능력이 겸비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만다.

사람들을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켜야 할 사명을 지닌 당일군에게 있어서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이야말로 진짜실력이라고 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실지 사업과정을 통하여 쓸모있는 산지식과 당사업경험도 쌓고 실무능력도 키워야 한다. 때로는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고충을 따뜻이 헤아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대중의 앞장에서 걸싸게 일도 해제끼며 때로는 마이크를 잡고 열정적인 선동도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꿰드는 법, 그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움직이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하나를 구상하고 설계해도 혁신적인 안목으로 통이 큰 작전을 펼치는 진취적인 일본새, 일단 결심하고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완강한 기질, 그 어떤 애로앞에서도 든든한 배심으로 만사를 신축성있게 처리하는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

당일군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모르는것은 배우고 아는것은 공고히 하면서 자기의 사업과정에 대하여 늘 깊이 연구하고 스스로 경험과 교훈을 찾아보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할 때 쓸모있는 산지식과 모든 일을 막힘없이 척척 해제끼는 능력을 소유한 박식가, 실력가가 될수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오늘의 총공격전의 기수, 전위투사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혁명의 요구, 시대의 요구앞에 떳떳한 박식가, 실력가가 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대중의 평가, 값높은 호칭

만능박사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룡국동무는 온 나라가 다 아는 공학박사이다.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학위들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있었다.

얼마전 성강청년3호발전소에 대한 취재길에서 있은 일이다.

발전소언제가 위치하고있는 산골짜기로 들어서던 우리는 저도모르게 《야—》하고 환성을 터치였다.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선것 같았다. 울창한 산림을 배경으로 일떠선 가족휴양소건물들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들었다. 건물들의 조형화, 예술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휴양소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멋쟁이였다.

그런데 그 휴양소건물들의 설계와 시공에도 다름아닌 련합기업소당책임일군의 사색과 탐구가 깃들어있다니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오리목장, 부업농장, 버섯생산기지, 정양소, 비누생산기지, 흥평지구에 건설된 풀먹는집짐승방목기지…

그 모든것들에도 당책임일군의 사색과 탐구, 헌신의 땀방울이 깃들어있다고 한다.

이렇듯 주체철분야는 물론 농산과 축산, 건설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막히는것이 없기에 그를 가리켜 만능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결코 무리가 아니였다.

만능박사!

세상에는 아직 그런 학위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당정책관철에서 어느 하나도 막히는데가 없는 실력가형의 당일군들만이 받을수 있는 값높은 호칭이 아니겠는가.

백과사전

순천화력발전소 초급당비서 리청복동무를 발전소의 현장기술자들은 누구나 무척 따른다.

그와 함께 마주앉으면 서로 말이 통하고 아무리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도 척척 풀려나가기때문이라고 한다.

과학기술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일군도 아닌 당일군이 어떻게 되여 이런 경지에 오르게 되였을가.

그 호기심은 초급당일군이 기술협의를 하고있다는 열생산직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초급당일군은 열생산직장 현장에서 기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에 열중하고있었다.

발전기의 출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열쇠의 하나는 열생산직장 보이라들의 미분화계통에 있다. 보이라의 미분화계통을 개조하자. 그리고 기업소적인 석탄분쇄기용 뽈생산에 힘을 집중하자. 예비기대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내밀어 발전설비들의 보수시간도 줄이자. …

기술용어들을 써가며 그가 하는 말을 듣느라면 누가 기술자이고 누가 당일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현장에 늘 붙어사는 기술자들 못지 않게 문제해결의 열쇠를 당일군이 찾아내고있지 않는가.

취재과정에 우리는 초급당비서의 높은 실력을 보여주는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였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백과사전이라고 부를만도 하였다.

그렇다. 과학기술의 시대에 사는 당일군은 마땅히 백과사전이 되여야 한다.

본사기자 채인철

《수필》 팔방미인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

아마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천일수도 있고 만일수도 있다.

마음씨가 곱다, 일솜씨가 곱다, 말씨가 곱다, 얼굴이 곱다 등 곱다라는 말이 많은것은 사람마다 미학적견해가 서로 다르기때문일것이다.

어쨌든 미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그 어떤 측면에서든 나름대로 아름다운것에 대한 찬양인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모든 측면을 다 포괄하는 리상적인 아름다움을 두고 하는 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팔방미인이다.

하다면 오늘 팔방미인이란 말의 참뜻을 력대로 써온 말의 의미와 나란히 할수 있을가.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은 팔방미인형의 실력가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뜨겁은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부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다재다능한 인재, 팔방미인이 되여야 합니다.》

팔방미인!

이것은 사전에도 있듯이 어느 모로 보나 미인이라는 뜻으로 재간과 기능이 여러가지인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옛적부터 이 말은 아름다운 노래처럼 전해왔다.

배나무집아들은 확실히 팔방미인이요, 살구동네에 팔방미인이 났다오, 서당집며느린 갈데없는 팔방미인이야. …

하지만 오늘 팔방미인이란 말은 마을의 동구밖을 벗어나 시대의 값높은 부름소리로 메아리되여 울리고있는것이다.

일군들은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도 알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줄 아는 팔방미인형의 실력가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새길수록 하많은 생각을 불러온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수령이 사랑하고 인민이 존경한 수많은 팔방미인형의 실력가들이 기록되여있다.

김혁, 차광수, 김책,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

수령의 사상과 뜻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열혈의 투사들은 그 무엇에도 막히는데가 없는 다재다능한 인재, 불같은 정열의 화신들이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에서도 그런 일군들을 찾아볼수 있다.

취재길에서 알게 된 성강과 남흥, 3월5일청년광산과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실력가형의 일군들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일군들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고 비약이 있다.

당의 결정지시앞에 항상준비된 일군, 이런 일군이 바로 팔방미인형의 일군이 아니겠는가.

팔방미인,

이것은 누구나 바라는 리상이지만 타고난 천성은 아니다.

언제인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현실은 울타리없는 교정이며 지식은 한생의 대학과정안입니다. 일군이기 전에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배우고 또 배워야 당정책을 막힘없이 집행할수 있습니다. 실력은 타고난것도, 누가 선사하는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와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충정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사업의 능수, 유능한 작전가, 기술혁신에선 박사, 무대에 오르면 가수, 탁구장에 나서면 선수가 되여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팔방미인형의 일군인 그의 말에는 실천속에서 찾은 진리의 메아리가 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방식, 풍모를 닮으면 팔방미인이 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천재적인 위인들을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가 있다.

위대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풍모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의 길을 진두에서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삶과 투쟁의 숭고한 귀감으로 받들고 따르는 길에 가장 리상적인 실력가형의 일군이 되는 길이 있는것이다.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는 오늘의 비상한 현실은 다재다능한 인재, 팔방미인형의 일군들을 부르고있다.

그렇다.

팔방미인!

이것은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에서 피여나는 아름다운 꽃이고 시대가 일군들에게 안겨주는 가장 값높은 표창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영철

《나의 스승》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선전을 잘하고있는 당일군 노래학습을 통하여 위대성—

본사기자 찍음

재령군 굴해리당비서 윤기철동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는 사연이 있다.

쉴참이면 농장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그의 주위에 모여앉군 한다. 리당비서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이다. 주제는 다양하다. 과학적인 영농방법의 우월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도 하고 어느 농장에서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부쩍 높인 소식이며 어느 마을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된 소식을 알려주기도 한다. 때로는 이름난 체육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국제정세를 개괄해주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은 신문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마치도 새 소식을 듣는듯 그의 강의에 심취되여 귀를 강구군 한다.

그는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도 농장의 실정과 결부하여 이야기해주고 다른 단위의 경험을 알려주면서도 리에서도 그에 못지 않게 할수 있다는 신심을 북돋아주군 한다.

들을 소리가 있고 남는것이 있는 그의 강의의 묘술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당보의 어느 한 구절도 무심히 대하지 않습니다. 당보는 선생님처럼 많은것을 배워줍니다. 당보야말로 언제나 곁에 있는 나의 스승입니다.》

그렇다. 농장원들의 스승이 리당비서라면 그의 스승은 당보였다.

본사기자

제대군관당일군의 좌우명

흥남구두공장 초급당비서 김명열동무

《일군들은 〈실력으로 당을 받들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애써 배우며 창조적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쉰고개를 넘어선 초급당비서 김명열동무가 대학에 입학할 생각을 터놓았을 때 흥남구두공장 일군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기사장 박태선동무는 열렬한 지지가 담긴 눈길을 보냈다. 그의 머리속에 초급당비서가 임명되여오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기사장동무, 학생 한명 받은셈치고 날 좀 배워주시오.》

초급당비서의 향학열은 놀랄만 한것이였다. 책상우에 쌓이는 기술서적의 키가 날이 감에 따라 높아졌다. 손에는 언제나 책이 붙어있었다. 로동자들에게도 머리숙이며 허심하게 배웠다.

해가 갈수록 배움의 열망은 더욱 강렬해졌다. 사실 오래동안 인민군대에서 지휘관으로, 제대되여서는 당일군으로 사업하다나니 전문적인 과학기술교육을 받지 못한 그였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전문지식의 공백을 인식할 때마다 그는 괴로왔다.

더우기 공장에 현대적인 신발창생산기지를 꾸리고 동해지구의 신발공장들에 신발창을 전문적으로 생산공급할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면서 실력을 높이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였다.

(지금은 직급이나 간판을 가지고 일할 때가 아니다. 과학기술의 시대 당일군답게 실력을 높이자.)

이렇게 되여 함흥경공업대학 통신입학생이 된 그는 무서운 정열을 가지고 신발공업의 세계를 파헤쳐나갔다. 그의 향학열에 감동된 대학교원들도 적극 도와나섰다.

현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속에 들어가서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생산실천에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놓고 론쟁도 벌렸다. 그 과정에 《고주파문양기개조》 등 3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을 하여 창의고안증서도 받았다.

나이가 들수록 그의 독서열, 탐구심은 더욱 왕성해졌다. 사무실도 생산현장도 협의회장도 그에게는 대학교정이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이고 로동자들모두가 스승이였다.

집에 들어온 날에도 날이 새도록 책에 파묻혀있는 그에게 안해와 자식들은 웃음어린 핀잔을 주군 하였다. 당사업이나 착실히 하면 됐지 나이도 많은데 무슨 큰 발명을 하겠다고 그렇게 애쓰는가고.

그러면 김명열동무는 말하였다.

《당신도 잘 알지. 우리 공장을 찾아오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라고 하신 교시를 말이요. 이 당비서가 배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유훈을 관철하겠소.》

꾸준한 독서와 사색, 탐구로 지식의 탑을 한계단한계단 착실히 쌓고 기발한 착상도 내놓으며 온 공장에 과학기술열풍을 일으켜나가는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가볍고 질기면서도 미끄럼견딜성이 강한 질좋은 신발창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새 기술연구와 도입이 마감단계에 들어선것이다.

실력전의 시대에 락오자가 되지 않으려거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라.

이것이 변함없는 학생의 자세로 실력전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 제대군관당일군의 좌우명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봄밀, 보리심기가 끝났다

평안북도 농촌들에서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북도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최적기를 놓치지 않고 력량을 집중하여 봄밀, 보리씨뿌리기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농촌들에서는 당의 두벌농사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지난 10일까지 도적으로 봄밀, 보리심기를 전부 끝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가을에 심은 밀, 보리밭에 대한 밟아주기와 되살이비료주기 등 가을밀, 보리비배관리를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으로 떳떳이 들어설 불같은 열의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도안의 시, 군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날씨가 풀리지 않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봄밀, 보리심기를 다그치기 위한 준비를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들에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모판만들기 등 당면한 농사차비를 다그치면서 두벌농사면적을 늘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특히 모든 농촌들에서 적기를 놓치지 않고 봄밀, 보리씨뿌리기를 와닥닥 끝내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한개 시, 군씩 맡고 내려가 포전들을 직접 밟아보면서 봄밀, 보리씨뿌리기면적을 늘이도록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룡천군에서 많은 면적의 밭에 봄밀, 보리를 심으면서 두벌농사를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운전군과 정주시, 염주군과 철산군에서도 지난해보다 봄밀, 보리씨뿌리기면적을 늘이고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두벌농사에 힘을 넣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봄밀, 보리농사를 잘 지은 농장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해나갔다.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씨뿌림면적에 따르는 종자확보와 종자처리, 포전갈이 등을 앞세우면서 힘찬 투쟁을 벌려 지난 10일까지 봄밀, 보리씨뿌리기를 전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안의 시, 군 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 가을에 심은 봄밀, 보리밭비배관리도 놓치지 않고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한사람같이 떨쳐나 봄밀, 보리심기를 질적으로 끝낸 도안의 시, 군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금 벼씨뿌리기를 다그치면서 동시에 감자농사차비도 적극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일터는 어떻게 지키고 빛내여야 하는가

홍원철제일용품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홍원철제일용품공장은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이다. 그러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지만 가정들과 피복생산단위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필수품들이다.

7년전까지만도 맡겨진 계획수행에서 응당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다싶이 했던 공장이다. 그러한 단위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단위로, 3대혁명붉은기칭호를 수여받은 공장으로 전변된것은 실로 자랑할만 한 일이다. 보다 주목되는것은 공장제품들이 홍원군의 지경을 벗어나 주변군들과 다른 도들은 물론 수도에서까지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동안 자력갱생의 힘으로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해왔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해온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이야기는 깊은 여운을 남겨주고있다.

내가 지켜선 일터

오늘날 경제강국건설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이 계속되는 속에서 벌어지고있다. 그렇다면 인민소비품생산단위, 특히 한개 군 지방산업공장을 지켜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떤 비상한 자각을 안고 생산돌격전에 뛰여들어야 하며 어떤 의지로 증산의 동음을 이어가야 하는가.

김종철동무가 공장지배인으로 임명된것은 7년전 1월이였다. 그때 공장설비라고는 프레스와 철판절단기, 연마기를 비롯한 몇대 안되는 기계들과 0.5㎜짜리 용선로가 전부였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다나니 종업원들의 생산의욕도 높지 못했다.

그러던 공장이 오늘은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확립되였을뿐아니라 수십대의 기계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 생산의 동음을 기세차게 울리는 단위로 되였다. 공장을 다시 일으켜 생산정상화의 궤도우에 올려세우던 과정은 곧 그들이 내가 지켜선 일터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증명해온 나날들이였다.

김종철동무는 지난 기간에 전국에 소문이 난 공장제품이였던 가위생산에서부터 돌파구를 열기로 하였다.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군의 여러곳을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고 유휴자재들을 하나하나 마련하여 로에 불을 지폈다.

부분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품조립을 위한 용접만은 공장자체로 하기 어려웠다. 산소수소혼합가스발생기가 없었던것이다. 그로 하여 종업원들은 수십kg이나 되는 배낭을 메고 멀리 떨어진 함흥시의 어느 한 공장에까지 가서 조립해오군 했다. 이렇게 해서는 공장을 생산정상화의 궤도에 한시바삐 올려세울수 없었다.

김종철동무는 공장의 기술자들, 기능공들과 마주앉아 산소수소혼합가스발생기를 자체로 만들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를 해보았다. 하지만 해본적이 없는 생소한 일이여서 모두의 얼굴에는 자신심이 없어하는 기색이 진하게 비꼈다.

《물론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던 항일혁명선렬들과 정전이 되면 손으로 피대를 돌려 무기를 생산하던 군자리로동계급을 생각해봅시다. 그때에 비하면 오늘의 난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 손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각오를 안고 한번 해봅시다.》

지배인의 호소에 모두가 떨쳐나 제작전투에 진입하였다. 지배인부터가 앞장에 서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려고 중앙의 과학연구집단을 찾아 먼길을 걸었다. 절실히 요구되는 강판문제를 풀기 위해 자금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날과 날이 흐르는 속에 이들은 끝내 산소수소혼합가스발생기를 만들어내고야말았다.

파철이나 다름없이 되여 버림받던 랭간압연기도, 다른 단위들에서 쓰지 못하고있던 프레스들을 비롯한 기계설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자체로 수리하여 튼튼한 생산토대를 구축하여놓았다. 동력이 모자라면 발동발전기를 돌려서라도 생산을 중단없이 보장하였고 확대재생산으로 축적한 자금을 가지고 새 설비들도 하나하나 마련하였다.

오늘날에 와서 공장에서는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 하루하루를 곧 일터를 지키고 조국을 지키는 투쟁으로 여기고있다.

그렇다.

내가 지켜선 일터, 그것은 전화의 그날 영웅들이 지켜섰던 나의 고지와도 같다. 우리 조국을 침범한 원쑤들에게 죽음을 주며 조국의 고지는 나의 고지라고 웨치던 전화의 영웅들의 목소리는 지금 이 시각도 공장의 일터마다에 울려퍼지고있다.

나의 일터는 나의 고지라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으로 그 일터를 지키고 조국을 지키라고!

《우리 공장제품입니다》

공장이 생산정상화에 들어갔다. 제품들이 나와 상업망으로 퍼져갔고 인민경제계획도 수행하니 종업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배인 김종철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제품의 질이 아직 응당한 수준에 있지 못했던것이다.

—계획이나 맞추는 제품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인민들은 그러한 제품들을 보며 아까운 자재와 전기, 로력만 랑비했다고 하지 않겠는가. 질높은 제품을 놓고 제일 기뻐하는것도 인민이며 그렇지 못한 제품을 두고 가슴아파하는 사람들도 인민이다. 인민들앞에 떳떳한 제품을 만들자.

이렇게 결심한 그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군의 피복공장들과 편의봉사망들을 찾아가 그곳 종업원들과 마주앉은 지배인은 자기 공장제품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의것이 되게 하려는 지배인의 심정에 감동된 그들은 솔직한 마음을 터놓았다. 손에 붙지 않아 직선으로 자르려고 해도 잘되지 않는다는것, 강질이 좋지 못해 오래 쓸수 없다는것, 손잡이구멍이 커서 리발용으로 쓰기 불편하다는것…

김종철동무는 공장에 돌아와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앞에 나섰다.

《우리 군에서도 호평을 받지 못하는 제품들을 놓고 어떻게 우리 공장제품이라고 온 나라 인민들앞에 떳떳이 말할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합심하여 질을 높입시다.》

지배인의 말은 계획수행만으로 만족해오던 종업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모든 공정들에서 질개선을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강질보장을 위해 송풍기를 개조하여 단조로에서 적합한 로온도를 보장했고 열처리공정에서는 열처리기름의 배합을 잘하였다. 연마공정을 비롯하여 다른 공정들에서도 질을 높이기 위해 모두가 떨쳐나섰다.

김종철동무는 이와 함께 매주 월요일을 기술학습의 날로 정하고 모든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의 수준을 더욱 높여나갔다.

한두번의 대책이 아니였다. 의견을 받았던 단위들에 찾아가 다시 만든 제품들에 대한 의견을 또다시 들었고 평양에로의 출장길에 오른 때에도 편의봉사망들을 찾아가 의견을 종합하군 하였다.

이렇게 김종철동무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갔다.

다른 군들에서까지 수요가 높다는 소농기구들과 자체의 지방원료에 의거하여 만든 용접봉들을 비롯한 각종 제품들도 이런 헌신의 나날속에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우리 공장제품입니다.》

길지는 않아도 쉽게 할수 없는 말이다. 오늘날 이 말속에 어떤 무게가 실려야 하는가를 홍원군의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생산하는 제품 하나하나를 우리 의것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게 애써 노력하고있는 그들의 일본새가 잘 말해주고있다.

* *

우리는 여기에 많은 이야기를 전하지 못한다.

축사와 버섯재배장, 남새온실을 꾸리던 일이며 슬라크가 쌓여있던 2000평의 버럭땅을 옥토로 만들어 네벌농사까지 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고있는 사실, 큰비로 몇명의 종업원들의 살림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당, 행정일군들이 선참으로 달려가 힘을 안겨주고 빠른 기간에 새로 번듯하게 다시 지어준 사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 종업원들의 후방공급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내달리고있는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의 현실이 안겨주는 여운은 실로 크다.

리영민

‖ 공동구호에서 ‖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라!

발전전략작성에 왜 큰 품을 들였는가

령남배수리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령남배수리공장 일군들의 경제작전과 지휘가 주목을 끌고있다. 공장에서는 지난 1월말까지 2020년까지의 공장발전전략을 작성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공장 일군들은 경제적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생산활성화와 종업원들의 후방생활,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를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하나하나 실천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올해초 공장책임일군들은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울데 대한 신년사의 과업집행을 놓고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자면 전망적인 발전전략부터 가져야 한다.》, 《옳다. 우리 공장이 최근년간에 어려운 조건에서 배수리계획을 비롯한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비결도 실리보장의 전략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였기때문이다.》…

결국 이날의 모임에서 책임일군들은 2020년까지의 공장발전전략을 작성할것을 결정하였다.

발전전략을 공장두뇌진의 집체적지혜를 적극 발동시켜 작성하는것이 책임일군들이 무엇보다 먼저 틀어쥔 중심고리였다.

지배인, 기사장은 물론 부지배인과 부기사장 그리고 계획, 기술, 생산, 후방부서의 모든 과장들과 핵심적인 성원들로 발전전략작성을 위한 그루빠가 조직되였다.

모든 사업은 그 담당자들의 사상이 어떻게 발동되는가에 따라 성과여부가 결정된다. 이것을 명심한 지배인은 그들을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확립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시된 당정책과 국가의 결정, 지시들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을 첫 공정으로 삼았다. 하루사업이 끝난 후 진행된 토의사업은 의례히 학습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지배인이 기업관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제기하였다. 그러면 각자가 해당 당정책과 국가의 결정지시를 학습하고 그에 립각하여 방도적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내놓았다. 그에 대한 서로의 주장과 견해가 교환되는데 여기서 책임일군들이 강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을 철저히 당정책과 국가의 결정지시의 진수를 공장실정에 맞게 옳바로 파악하고 구현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과정으로 일관시킨것이다.

학습을 앞세운데 기초하여 책임일군들은 공장의 최근 3년간의 기업관리정형과 결과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도록 토의방향을 이끌어나갔다. 생산과 기술발전, 계획사업, 재정회계 및 후방사업 등 모든 경영활동정형을 지표별로 종합하고 우결함들을 자기식으로 찾아보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데서 어떤 점들을 놓쳤는가, 현대적인 용접봉생산기지를 비롯하여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리용하지 못한것은 무엇인가,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들을 합리적으로 재리용하는가 등 지난 시기의 기업활동정형을 누구나 새로운 관점과 립장에서 돌이켜보도록 하였다. 그 나날 지배인은 일군들모두가 공장기업관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자각을 간직하도록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였다.

발전전략작성을 위한 사업에서 이곳 책임일군들이 중시한것은 또한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립장에 철저히 서서 목표를 동원적으로 세우도록 이끌어나간것이였다.

공장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배수리 및 해체기업체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발전전략이 작성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책임일군들은 발전전략작성을 위한 토의사업과정에 당과 수령의 손길아래 마련된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옳게 동원리용하면 당의 의도대로 세계를 향해 능히 나갈수 있다는 신심을 백배하였다. 더우기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신년사의 구절을 새기며 그들은 하루빨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향해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쳐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였다.

당의 크나큰 사랑속에 이미 지난해 공장에는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킬수 있는 해당 조치가 취해졌다.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이번 발전전략수립과정에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과학기술발전을 우선시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실적이며 실무적인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동원적인 높은 목표는 그 수행을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책임일군들은 이번 발전전략수립과정에 공장의 현존생산잠재력을 발휘하는데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들을 헤쳐고나갈 실제적인 방도들을 찾는데 큰 품을 들이였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긴장한 전력을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방도 즉 석탄가스화발전체계도입문제이다. 지난해말과 올해 1월 공장에서는 대용량발동발전기를 돌리거나 여러대의 작은 발동발전기들을 돌려 현행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하였다. 이번 토의과정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타산을 해보는 과정에 일군들이 한결같이 느낀것은 보다 실리적인 전력생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책임일군들은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료해하는 과정에 현대적인 석탄가스화발전체계를 도입할것을 결심하였다. 공장에 능력이 큰 자체탄광이 있는 조건에서 이 발전체계만 갖추어놓는다면 기업관리와 생산활동과 관련된 많은 고리들이 저절로 풀리게 되는것이였다.

《그 모든것이 작전도에 반영되였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래일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고 무조건 할수 있다는 각오로 충만되여있습니다. 몇년후에 우리 공장에 꼭 와보십시오.》

무척 사색적이고 탐구적인 리대성지배인의 이야기로 우리는 취재를 마감지었다.

이 공장 일군들의 기업관리작전이 우리에게 준 충격은 참으로 컸다.

당과 국가앞에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투철한 각오와 결사관철의 신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일군들만이 래일을 확신성있게 내다볼수 있으며 이런 일군들이 많아야 우리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은 더 빨리 현실로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병춘

설비현대화에서 틀어쥔 중심고리

사리원방직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능률이 낮은 설비들과 손로동이 많은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여 가까운 기간에 경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면모를 일신시켜야 합니다.》

사리원방직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설비현대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이 설비현대화에서 틀어쥔 중심고리는 종전의 낡은 설비를 생산능률이 높은 설비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은것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북직기를 외축식유연창대직기로 개조한것이다.

공장현대화를 위한 목표를 세우면서 이곳 일군들은 수입설비에 매달리지 않았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능력있는 기술자들과 오랜 고급기능공들로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조건보장을 앞세우면서 직기개조전투를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부기사장 리옥희동무와 4.15기술혁신돌격대에 망라된 리성민, 리봉우, 오충렬동무들,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고심어린 탐구와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설비개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실속있게 풀어나갔다. 설비개조도면을 완성하는데 큰 힘을 넣고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특히 종전보다 설비들의 생산능률을 높이는데 맞게 부분품들의 기술적특성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주목을 돌리였다.

여기서 강조할것은 아무 일이나 오분열도식으로 하여서는 절대로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이다.

사실 지난 시기에도 설비개조가 진행되였다고는 하지만 시제품을 만들어놓는데만 그치고 리용과정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여 중도반단하는 편향이 적지 않았다.

공장일군들은 현행생산에만 치우치면서 기술혁신성과가 응당한 빛을 보도록 꾸준히 밀고나가지 못한데서 교훈을 찾고 설비개조를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이 과정에 창대운동계통과 천말기부분 등에서 제기되는 5가지의 주요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게 되였으며 생산되는 천의 질을 한계단 더 끌어올리는데서 혁신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자체의 힘으로 설비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할 열의밑에 완강하고도 꾸준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3개월만에 종전의 북직기를 외축식유연창대직기로 훌륭히 개조하고야말았다.

이렇게 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종전에는 기능공 한명이 5대의 직기를 맡아보았다면 지금은 최고 16대까지 맡아돌리면서도 설비 대당 생산실적이 근 2배로 뛰여오르게 되였다. 이전의 북직기보다 각종 기료품소비가 훨씬 적어져 많은 로력과 자재가 절약된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소음과 먼지도 대폭 줄어들어 작업환경이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지게 되였다.

얼마전 공장에서 진행된 보여주기사업에 참가한 방직공업부문 일군들은 북직기를 외축식유연창대직기로 개조하여 실지 천생산에서 큰 은을 나타내는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신심을 가지게 된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수입병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능률이 낮은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생산되는 천의 질과 량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본사기자 홍철호

집중생산방법으로 얻은 실리

길주합판공장에서

최근년간 길주합판공장에서 계절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종전에 비해 많은 전기와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해마다 계통적으로 늘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판생산은 원삭, 건조, 압착, 완성 등과 같은 흐름식공정을 거쳐 진행된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3년전부터 로라건조공정을 전혀 돌리지 않고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여 이 공정이 없이도 생산을 늘이고 있는가.

달라진 생산조직에 그 대답이 있다.

우선 겨울철생산조직을 놓고보자. 지난 시기 이 기간에는 기온이 낮은것으로 하여 합판생산에 더 많은 전력과 로력, 석탄과 연유가 들었다. 더우기 문제로 된것은 보장조건에 따라 파동이 생겨 계획적으로 합판생산을 내밀수 없는것이였다.

여기에서 공장일군들이 찾은 방도가 있었다. 겨울철에는 전반적생산공정을 다 돌릴것이 아니라 통나무생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조건에 맞게 일부 기능공들로 원삭과 같은 선행작업만 진행하는것이였다.

일리가 있었다. 겨울철통나무생산은 원가가 적게 들기때문에 공장적인 력량을 집중한다면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한해동안 쓸 통나무전량을 베여들일수 있었다.

공장에서는 전력이 비교적 적게 드는 원삭공정만 돌리는 한편 단판을 야외건조시키는 방법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생산방법의 도입으로 공장에서는 봄철부터는 압착과 완성에 힘을 집중하게 되였으며 생산이 해마다 늘어났다. 지난해 생산량은 3년전에 비해 1.7배나 된다.

경제적실리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지난 기간에는 건조공정을 돌리는데 년간 34만 4천여kWh의 전력과 1 700여t의 석탄, 3 400여kg의 연유를 소비하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이 필요없게 된것이다. 계절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생산방법은 이처럼 경제적실리에서나 생산장성측면에서 보나 종전과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가지고있으며 새 제품개발을 적극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공장에서는 수입산제품에 비해 수명이 2~3배나 되는 휘틀용내수합판을 개발하여 중요대상건설장에 보내줌으로써 해당 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집중생산방법으로 얻은 실리,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일군들이 부닥치는 조건과 환경에 맞게 부단히 새롭고 혁신적인 생산방법을 탐구하고 완강히 실천할 때 어느 단위에서나 적은 투자로 큰 실리를 얻을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시사해주고 있다.

전혁철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발전소옆에 생겨난 분공장

부령합금철공장에서

지난해 5월 어랑천1호발전소옆에 부령합금철공장 분공장이 일떠서 생산을 시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가까이에 건설하는것은 공업배치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입니다.》

본공장으로부터 퍼그나 떨어진 곳에 왜 새로운 합금철생산기지가 일떠서게 되였는가.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합금철생산에 필요한 광석을 천여리 떨어진 어느 한 광산에서 실어오고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광석수송문제는 공장의 생산을 활성화하는데서 가장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최근년간 합금철생산이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면서 공장의 일군들은 새로운 작전을 펼치였다.

종전처럼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급급할것이 아니라 생산지와 가까운 새로운 원료원천지를 찾기 위한데로 생각을 돌리였다. 그들은 해당 단위의 방조속에 도안의 지질학적조건과 광물분포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여러 지대들을 직접 밟아보면서 시료채취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련관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탐사도 적극적으로 벌렸다. 그 과정에 공장으로부터 250여리 떨어진 곳에서 품위높은 새로운 광석매장지를 찾게 되였다. 공장의 현존생산능력과 확정된 광석매장량을 놓고볼 때 수백년은 문제없었다. 원료수송거리도 종전의 1/4로 줄일수 있었다.

더욱 주목되는것은 새로 찾은 광석매장지로부터 불과 20리떨어진 곳에 어랑천1호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이였다. 합금철생산을 늘이기에는 더할나위없이 안성맞춤이였다.

광석매장지에서 공장까지 원료를 운반할것 없이 발전소옆에다 분공장을 세우는것이 어떤가 하는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면 합금철생산정상화에서 근본문제의 하나인 전력보장을 원만히 할수 있는것은 물론 광석운반거리 또한 250여리로부터 20리로 대폭 줄일수 있었다. 합금철생산에 쓰이는 다른 원료들의 수송을 타산해보아도 훨씬 리익이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합금철생산기지가 기본철도로선주변에 있는 제품소비단위들에 바싹 접근한것 역시 국가적견지에서 보다 유리한 측면이였다.

공장일군들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이곳에 분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어랑군 앞바다기슭에 풍부한 합금원소들을 리용하여 미량합금강을 생산할 궁냥을 한것이였다.

기계설비나 구조물들의 경량화실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복합합금철들의 다량생산, 이것은 공장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며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도약대로 될수 있었다. 이 모든 사업의 첫시작이 바로 분공장건설이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이곳 일군들의 이러한 혁신적인 발기를 적극 지지해주었고 그 실현을 물심량면으로 떠밀어주었다.

지난해 공장에서는 발전소옆에 세운 분공장의 덕으로 합금철생산을 크게 늘이였으며 어랑천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였다.

하나를 통하여 둘, 셋을 얻는 원칙에서 최대한의 경제적실리를 보장하면서 나라에도 큰 보탬을 주고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지금 공장의 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분공장의 생산활성화와 그 능력확장에 력량을 집중하는 한편 부령지방에서 유용광물매장지를 찾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펼치고있다.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과감한 공격정신,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일본새로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참으로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류성국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몽골 국제화초전시회 1등상 수여

위인칭송의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몽골 국제화초전시회 1등상이 수여되였다.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전시회에는 우리 나라와 몽골,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진귀한 화초들이 출품되였다.

300여상의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조선전시장에는 김정일화가 세계적인 화초박람회, 전시회들에서 받은 상장, 메달들을 소개하는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조선전시장은 붉고붉은 김정일화의 황홀함과 아름다움에 매혹되여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각국의 인사들과 화초전문가들, 애호가들로 련일 성황을 이루었다.

참관자들은 이렇게 희한한 꽃은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몽골 쏘욜즈총회사 총사장은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화로 하여 이번 전시회가 더욱 화려하고 이채롭게 장식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

로씨야에서 진행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10일 로씨야 원동국립인문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기증식에는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정부, 원동국립인문종합대학, 련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강위원회 인사들과 군중들, 하바롭스크주재 우리 나라 부총령사와 령사들이 참가하였다.

기증식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한 도서들,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화첩 등이 전달되였다.

하바롭스크변강정부 교육과학성 부상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도서기증식은 로씨야와 조선사이의 쌍무관계발전에서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 로조관계는 두 나라 지도부의 깊은 관심속에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지난해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의 특사의 로씨야방문이 이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하바롭스크변강정부는 앞으로도 조선과의 교육 및 과학협조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원동국립인문종합대학 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증된 도서들은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조선을 더 잘 알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로조친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과업이다. 여기서 새 세대들사이의 호상 리해를 두터이 하도록 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기증받은 도서들에 기초하여 대학에서 로씨야의 가까운 벗인 조선에 대한 학술연구 및 지식보급사업을 적극화해나가겠다.

【조선중앙통신】

이악한 녀성분조장

구장군 조산협동농장 제3작업반 5분조장 박광옥동무는 일 잘하기로 소문난 녀성분조장이다.

그는 4년전 분조장사업을 맡아안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분조농사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비탈밭을 걸구기 위해 그는 해마다 분조원들을 불러일으켜 흙깔이와 밭돌추기를 근기있게 진행하고 두엄도 듬뿍이 내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계속 높여갔다. 지난해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심장에 새기고 분조농사를 보다 알심있게 지어 첫해에 비해 거의 두배의 높은 알곡소출을 내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로농통신원 리창남

3월 하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배치를 잘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3월 중순, 하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때때로 남쪽에서 흘러드는 더운 공기의 영향도 받아 대부분 지방에서 순별기온변동이 심하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것으로 예견된다.

평균기온은 3월 하순에 량강도에서 0.6℃, 그밖의 지방에서 3.7~7.1℃로서 전반적지방에서 평년보다 0.6~1.2℃ 높으며 지난해에 비하여 3.6~5.4℃ 낮을것으로 보고있다. 3월 하순 강수량은 전반적지방에서 3~9㎜로서 평년보다 2~4㎜, 지난해에 비하여 평안남북도, 북부내륙지방, 함경남도에서 2~6㎜ 적을것으로 예견된다. 황해남북도, 함경북도, 강원도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1~6㎜많으며 평양시에서는 지난해정도일것으로 보고있다. 해비침률은 3월 중순에 전반적지방에서 평균 60%로서 평년정도일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는 이른큰모의 씨뿌리기와 모판관리를 잘하며 다른 모종류들의 씨뿌리기준비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른큰모재배를 위한 품종은 낮은 온도에 대한 견딜성이 강한 중간늦종들을 선정해야 한다. 동해안지대에서도 이른큰모재배를 위한 품종으로 낮은 온도에 대한 견딜성이 강하고 생육기간이 긴 품종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른큰모씨뿌리기는 평균기온이 2℃이상 되는 시기부터 진행할수 있다.

우선 차단재료로 벼겨를 모판평당 1.5~2㎏ 깔고 그우에 모판재료(부식토와 흙을 3:7비률로 혼합)와 벼모판종합영양제를 평당 240g 섞어 만든 모판흙을 펴는 방법으로 모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른큰모는 벼모를 낮은 온도에서 기르는 조건에서 벼모마름병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모판흙의 pH를 4.5~5.5정도로 보장하며 벼모판종합영양제를 반드시 리용하여야 한다. 이른큰모의 평당 씨뿌림량은 품종별천알무게를 고려하면서 200~250g으로 정하며 씨앗처리를 잘하고 싹을 틔운 씨앗을 뿌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른큰모재배를 계획하였지만 박막을 두겹으로 씌우지 못하는 경우 다른 모종류들을 선택하여야 한다. 영양단지모, 영양랭상모, 영양알모 등의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할수 있도록 씨앗처리와 씨뿌리기에 필요한 자재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밀, 보리농사에서는 가을밀, 보리의 되살이률을 높이며 봄밀, 보리의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끝내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3월초에 기온이 높은것으로 하여 가을밀, 보리의 되살이가 시작되였지만 최근 기온이 내려가고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되살이시기가 지난해(2월말~3월 상순초)보다 현저히 늦어질것으로 예견된다.

가을밀, 보리밭에 되살이비료를 제때에 주고 다져주기를 잘하는것과 함께 되살이률이 낮은 포전들에서 평당 포기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식모의 모판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봄밀, 보리의 씨뿌리기를 빨리 끝내야 한다. 모를 길러 옮겨심는 방법과 단지모재배방법을 도입한 단위들에서는 모판관리를 잘하여 모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

감자농사에서는 감자종자랭상처리를 잘하고 감자를 적기에 질적으로 심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우선 감자랭상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랭상모판을 질적으로 만들며 랭상모판에서 싹이 밑으로 향하도록 종자감자를 한벌로 펴고 부식토와 흙을 7:3의 비률로 혼합하여 만든 재료로 2~3㎝정도 복토한 다음 물을 충분히 주고 박막과 나래를 덮어주어야 한다. 랭상모판에서 낮온도는 싹이 나오기 전에 25~30℃,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20~25℃, 싹이 10%정도 나오면 20℃정도로 보장하며 밤에는 박막을 두겹으로 씌우는것과 함께 나래를 덮어 5~6℃로 보장하여야 한다. 랭상모판의 습도는 75~80%로 보장하여야 한다. 옮겨심기에 적합한 감자모는 잎이 2~3개정도 자라고 뿌리가 잘 내린 모이다.

다음으로 감자를 적기에 심어야 한다.

감자심기는 평지대에서 10㎝층 토양온도가 5~6℃정도 보장되는 3월 25일부터 4월 5일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평당 심는 밀도는 20~30g 통알감자인 경우 25~28포기, 30~40g 통알감자인 경우 22~24포기, 40~50g 통알감자인 경우 20~22포기로 보장하여야 한다.

앞그루감자재배에서 감자랭온상처리에 의한 큰싹모기르기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백두대지의 참된 주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백두대지를 가꾸어가는 참된 주인들속에는 대홍단군 농사동농장 관리위원장 리광선동무도 있다.

리광선동무의 고향은 대홍단군이다. 그는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가난한 농가에 주고가신 밀씨앗이 오늘은 백두삼천리벌에 물결치고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백두대지에 개척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기슭에서 눈서리, 칼바람도 꿋꿋이 이겨내는 이깔나무의 강인한 모습에 자기를 비추어보며 청춘시절을 보낸 그는 당세포비서, 작업반장을 거쳐 관리위원장으로 성장하였다.

대홍단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켜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소중한 그 땅을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며 리광선동무는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그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감자농사에서 대홍단군이 전국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리광선동무는 수확고가 높은 감자종자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관리공들의 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종자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그리고 농사동 돼지목장에서 생산되는 물거름을 포전들에 내기 위한 조직사업도 알심있게 짜고들었다.

례년에 없는 가물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던 지난해 어느날이였다.

밤늦게 포전을 누비는 홰불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리광선동무가 물초롱을 들고 감자포기들에 물을 주고있었던것이다.

《지나가면서 보니 땅이 목이 마르다고 말하는것 같더란 말이요.》

소박하면서도 진심이 푹 배인 그의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농장의 참된 주인, 실농군의 자세를 다시금 새겨보았다.

유서깊은 땅에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뿌리며 알찬 열매를 무르익히는 리광선동무, 백두대지의 참된 주인이라는 값높은 부름속에 시대의 선구자,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는 더욱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조경철

버섯재배열풍속에 태여난 대중버섯편람 《불로초》

불로초라고 하면 사람들은 구멍버섯과의 약용버섯인 령지버섯을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버섯은 항암제로도 좋고 독성물질들을 없애는 작용도 할뿐아니라 단백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가지고있으며 맛도 독특하고 좋다.

자료에 의하면 인류는 약 3만년전부터 버섯을 식료품으로 리용하여왔으며 재배하기 시작한것은 수백년전부터였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버섯은 열대로부터 한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여있는데 그 특성이 알려진 버섯종수는 1만 5 000여종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는 870여종의 각종 버섯이 자라며 경제적가치가 있는것만 해도 250여종으로서 그중에는 영양가가 높은 먹는 버섯이 많다.

특히 여러가지 생리활성물질들이 들어있는 불로초는 인삼에 못지 않은 보약제로서 사람이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 산다고 하여 장수버섯, 만년버섯이라고도 불리우고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그 이름을 새삼스럽게 불러보게 되는것은 불로초의 신비스러운 약효때문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에 휘몰아치는 버섯재배열풍과 더불어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태여난 하나의 귀중한 창조물이 우리를 불로초의 세계에로 이끈것이다.

그 이름도 유정한 《불로초》,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월 우리 나라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선 평양시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높이 평가하여주신 대중버섯편람의 제목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버섯재배에서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첨단을 돌파해나가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과학자들이 만든 대중버섯편람 《불로초》는 콤퓨터에서 리용하는 전자도서형식으로 되여있다. 버섯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학술연구에 도움을 줄뿐만아니라 사람들에게 버섯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상식을 주며 버섯을 재배하는 모든 단위들에 앞선 버섯재배기술을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되였다.

편람에는 우리 나라와 주변지역에서 자라는 440속 2 650여종의 버섯들에 대한 계통분류와 이름, 학명, 생물학적특성, 원색사진, 식용가치 등의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버섯재배를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과 재배방법이 확립된 60여종의 식용 및 약용버섯들에 대한 재배기술자료들, 버섯을 보관하고 버섯으로 통졸임, 음료, 조미료, 당과류 등을 만드는 가공방법들 그리고 송이버섯구이, 참나무버섯소고기탕 등 90여가지의 우리 나라 료리와 250여가지의 세계 여러 나라 료리를 만드는 방법이 사진과 함께 들어있다.

또한 버섯의 일반적인 모양이나 색갈 그리고 갓과 주름, 대, 주머니와 같은 버섯의 구조별생김새를 보고도 누구나 쉽게 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수 있도록 되여있다.

흰곤봉버섯, 느타리버섯, 참나무버섯, 검정버섯 등과 같이 버섯의 이름을 입력하면 분류학적위치와 생물학적특성, 원색사진, 식용가치, 재배기술, 자라는 곳, 료리방법, 야외에서 찾는 방법들을 비롯하여 버섯과 관련한 내용들을 하나의 련관속에서 열람할수 있다.

버섯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집대성되여있는 가치있는 이 대중버섯편람을 만들기 위하여 개발자들은 수년세월 줄기찬 탐구의 길을 걸어왔다.

그 첫걸음을 뗀 과학자들은 당시 30대, 20대였던 자연과학연구원 연구사 강정규, 전자도서관 연구사 고선영부부이다.

생화학전문가들인 이들이 버섯편람개발에 들어서게 된데는 사연이 있다.

우리 나라 균류학부문의 후보원사이고 교수 박사였으며 고선영동무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한 전 생명과학부 연구사 리승빈동무는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고 이들부부에게 자기가 마지막단계에서 집필하고있던 버섯속명사전의 원고를 넘겨주면서 꼭 완성해달라는 부탁을 남기였다고 한다.

외할아버지의 마지막부탁이기 전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탐구의 길을 앞장에서 헤쳐온 전세대 과학자가 새 세대 과학자들에게 하는 엄숙한 당부로 새기고 이들은 비록 버섯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전을 완성할것을 결심해나섰다.

이들부부의 결심을 당조직에서는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연구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이 사전을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리용할수 있는 전자도서형식의 폭넓고 깊이있는 대중버섯편람으로 더욱 훌륭히 완성할수 있도록 생명과학부 식물학강좌 연구사 조광일동무와 전자도서관 실장 장동철, 연구사 원창수동무를 비롯한 버섯분야와 프로그람분야의 실력있는 과학자들로 연구집단을 무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년간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번지는 버섯재배열풍과 더불어 연구집단은 버섯과 관련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자료들을 더 많이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류체계화하며 프로그람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탐구의 길을 더욱 힘차게 달려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새로 일떠선 평양시버섯공장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 편람에 버섯생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 세계적인 버섯생산추세도 알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을뿐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쉽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눈을 틔워주는 훌륭한 길동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버섯재배에서 기어이 세계를 압도하는데서도 룡남산의 아들딸들의 본분을 다하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대를 이어 그리고 헌신적으로 바쳐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 불같은 열정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소중한 창조의 열매로 무르익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버섯공장을 찾으신 그날 자연과학지도부 지도교원 전철용동무로부터 과학기술지식보급실 콤퓨터화면에 현시되여있는 이 편람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면서 버섯의 분류로부터 시작하여 버섯과 관련한 자료들이 다 들어있으면 좋다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가치있는 자료를 만들었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다녀가신 후 연구집단은 대중버섯편람을 더 많은 단위들과 사람들이 리용할수 있도록 할데 대한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결사관철하기 위한 긴장한 두뇌전을 또다시 벌리였다.

전자도서관 정보자료연구실 부실장 박상철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짧은 기간에 국내외의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계속 추가해주는 기능을 더 첨부하여 개별적인 콤퓨터들에서뿐아니라 콤퓨터망상에서도 리용할수 있게 보다 갱신하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하려는 룡남산의 과학자들의 높은 리상과 꿈이 깃든 대중버섯편람 《불로초》는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

누구나 어디서나 마음껏 리용하시라.

너도나도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도처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버섯재배열풍을 거세차게 일으킬 때 버섯의 나라에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비약의 지름길은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려명희

우리 민족장단이 제일

강원도정보통신국에서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적인 민족음악경연에서 강원도정보통신국의 종업원들이 출연한 종목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 민족적정서와 향취를 더해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 단위에서는 동해지구에서 진행한 예선경연때 노래 《바다 만풍가》를 준비하여 나갔었다. 예선경연에서 당선된 후 일군들인 조남현, 최봉렬, 리광복동무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여앉아 토의를 진행하였다.

분초급당일군이 다른 단위들에서도 《바다 만풍가》를 준비하여가지고 나오는데 특색있는 다른 노래를 선정하여 준비할것을 제기하였다.

진지한 토의끝에 민요풍의 가요인 《귀틀집실물레》를 선정하였다.

국장과 기사장은 이왕이면 민족악기를 더 많이 들고나가자고 제기하였다. 좋은 의견이였지만 한편 우려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 일군들은 경연준비과정을 민족음악을 장려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모든 종업원들이 심장속에 새겨안고 더욱 분발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성악을 하던 예술소조원들이 가야금과 저해금연주법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양악기를 다루던 예술소조원들이 장고와 대피리, 장새납과 고음저대의 연주법을 익히기 시작하였다.

직맹일군인 조성봉동무는 편곡과 지휘를 맡았다.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민족음악열풍을 일으키는데 달라붙었지만 쉽게 되지 않았다.

도안의 전문가들의 방조를 받아가며 하루에 한소절씩 익히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쉴참에도 그리고 일터로 오갈 때에도 민족장단을 익히기 위해 애썼고 먼저 민족악기연주법을 일정하게 익힌 종업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주과정을 보며 조언을 주기도 했다.

자기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록화하여 보면서 부족점을 찾는 때도 있었다.

일단 불이 달리니 선로공, 교환수, 시험공, 기계공 등 누구라 할것없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섰고 점차 민족음악의 흥과 멋에 저도모르게 끌려들어가는 자신들을 느낄수 있었다. 민요풍의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민족장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생각, 민족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우리의 민족선률이 세상에서 으뜸이라는 자부심이 나날이 커만 갔다.

이렇게 종업원들이 민족악기를 다루는 과정에 일터에는 민족적정서와 향취가 차넘치게 되였고 전국적인 민족음악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도 받게 되였다. 그것은 자연히 사업성과로 이어졌다.

강원도정보통신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민족장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오늘도 군중예술활동에서 민족음악의 흥취를 살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백성근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봉산탈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봉산탈춤도 좋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적재부의 하나인 봉산탈춤은 황해도지방의 특색있는 민속무용이다.

예로부터 황해도는 그 어느 지역에서나 탈춤이 성행하여 탈춤고장으로 불리웠으며 그중에서도 봉산지방에서 추어진 봉산탈춤이 제일 유명하였다.

봉산탈춤이 이름나게 된것은 력사적연원이 가장 오랠뿐아니라 봉건사회에서 중이나 량반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을 특색있는 춤형상으로 아주 신랄하고 날카롭게 풍자조소한것과 관련되여있다.

삼국시기에 강한 극성과 세련된 춤기법으로 예술화된 탈춤들이 민간예술인들에 의하여 공연되였다. 고구려나 백제의 탈춤은 이웃나라들에까지 알려졌다.

이러한 전통적인 탈춤들에 연원을 두고있는 봉산탈춤은 근로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노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보충완성되였으며 그 내용과 형상이 인민적이고 통속적인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각 지역에서도 환영을 받았다.

봉산탈춤은 12개 과장(탈춤의 구성단위) 즉 사상좌춤, 팔목춤, 법고춤, 사당춤, 로승춤, 신장사춤, 취발이춤, 사자춤, 량반춤, 포도비장춤, 미알춤, 남극로인춤으로 구성되여있다.

사상좌춤, 팔목춤, 법고춤, 로승춤, 신장사춤, 취발이춤은 중들의 파계상을 보여주는 춤들이다. 여기서 수십년간 도를 닦았다던 늙은 중이 소무에게 반하여 파계하는 내용을 담은 로승춤은 당시 중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을 신랄하게 풍자조소한 춤으로서 극성이 강하였다.

량반춤, 포도비장춤, 미알춤, 남극로인춤은 량반들의 부패타락한 모습을 형상한 춤들이다. 특히 량반춤에서는 병신탈을 쓴 3명의 량반과 그 하인 말뚝이의 극적형상을 통하여 봉건통치배들의 부패타락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강한 풍자와 해학적인 형상으로 생동하게 보여준다.

봉산탈춤은 노래, 기악연주, 춤, 대사, 무언극적연기, 탈과 의상, 소도구 등 다양한 형상수단과 수법으로 형상된 종합적인 민속예술형식이지만 춤이 기본형상수단이다. 이 탈춤의 고유한 춤기법에는 팔동작, 황새걸음, 게걸음, 까치걸음과 같은 걷기동작들이 있으며 이밖에도 탈을 쓴 얼굴을 들어 좌우를 살피는 동작, 목을 앞으로 쑥 내미는 동작, 한삼자락을 뿌리치거나 팔을 우아래로 흔드는 동작, 높이 올려뛰는 동작 등이 있어 형상이 전반적으로 활달하고 기백있다.

봉산탈춤은 《탈춤령산》에 맞추어 추어지는데 모든 춤들은 굿거리장단으로 시작하여 타령장단으로 마무리된다.

봉산탈은 종이탈인데 그 제작법을 보면 흙으로 만든 모형에 조선종이를 여러겹 발라 말리우고 색을 칠하며 탈면에 갖풀을 발라 윤기를 내였다.

탈면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한채로 색을 칠하여 우둥불가에서 춤을 출 때에는 강렬한 느낌을 주었다. 봉산탈춤은 해마다 봄철에 한번 공연하였으며 탈춤을 춘 다음에는 그 탈들을 태워버리는 관습이 있었다.

해방전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으로 하여 사멸의 위기에 처하였던 봉산탈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다시금 빛을 뿌리게 되였다. 주체92(2003)년 6월 봉산군 은정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농장원들이 추는 봉산탈춤도 친히 보아주시였다. 봉산탈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현대적미감에 맞게 재형상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공연되고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박사 김선영

동심을 틀어잡는 과외학습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재양성을 나무를 키우는데 비유한다면 교육은 토양과 같고 교육조건과 환경은 거름과 같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동대원구역 동신소학교에서 과외학습실을 잘 꾸려놓고 학생들의 실력제고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학교를 찾았다.

콤퓨터와 액정텔레비죤을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수단들과 수많은 박제품들, 동식물표본들, 책꽂이들과 책장들, 다락식학습장소, 사계절의 풍경이 그려져있는 책상들, 우리 나라 동식물분포도와 각종 상식판들, 진흙공작대, 우주의 신비로운 세계를 형상한 천정…

비록 크지는 않아도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특색있게 꾸려놓은 과외학습실은 우리의 감탄을 자아냈다.

교원들의 말에 의하면 높은 학년 학생들은 대체로 교원들과 함께 책상앞에 둘러앉아 수학문제풀이를 하고 낮은 학년 학생들은 다락식학습장소에서 종이접기와 쪽무이그림맞추기 등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 해가 기우는줄도 모른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쪽에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진흙공작도 할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책들도 보고 박제품과 표본들을 진지하게 관찰하기도 한다고 한다.

교장 강경옥동무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와 자연뿐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한 과외학습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동심에 맞게 과외학습실을 꾸려놓았더니 학생들이 무척 좋아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이 그처럼 과외학습실을 즐겨 찾는 까닭에 대해 알게 되였다.

동심, 바로 그것이였다.

과외학습실의 한쪽벽면과 여러개의 나무기둥에 의지하여 독특하게 세워놓은 다락식학습장소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일반적으로 어린 학생들은 넓은 공간보다 아늑하면서도 어딘가 자기들의 세계라고 느껴지는 곳을 좋아한다. 이런 심리에 맞게 나무계단이 달린 자그마한 다락을 만들어놓은것이 아주 특색있었다.

모든 벽면을 교육적효과를 높일수 있게 잘 리용한것도 눈길을 끌었다.

여러 벽면들에 있는 각종 그림들과 종이로 만든 모형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학과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것들이였다.

거리와 마을을 립체적으로 그려놓은 그림판앞에서도 학생들은 자기가 사는 집과 공공건물들의 크기도 대비해보고 거리의 길이와 각도도 가늠해보며 공간표상능력을 키워나가고있었다.

학생들의 손길이 가닿을수 있는 곳 그 어디에나 설치된 책꽂이와 벽장 또한 독특하였다. 참고서들과 그림책은 물론 지능놀이감들과 교원들이 자체로 만든 수백개의 지능계발카드들이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과 기억력, 관찰력, 상상력 등을 키워주는데는 그저그만이였다.

한마디로 과외학습실은 학생들이 하나를 배워도 재미있게 배우도록 꾸려져있었다. 그러니 늘 학생들로 꽉 차있을수밖에…

《과외학습실을 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는 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따르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경험에 토대하여 교실들도 보다 새롭게 꾸리려고 합니다.》

하나를 해놓아도 학생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며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나가려는 일군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는 교문을 나섰다.

본사기자 한경철

민족적정서와 향취가 넘쳐나는 명작창작에 열중하고있다. —국립민족예술단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홍역의 위험성과 그 예방대책

지금 세계적으로 홍역을 비롯한 여러가지 전염병들이 발생되여 사람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주변에 위치하고있는 나라에서 홍역환자들이 나타나고있는 사실은 전염병들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을 순간도 중단하지 말고 강도높이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염병과 질병을 제때에 막아야 합니다.》

홍역은 홍역비루스에 의하여 생기는 급성전염병이다. 이 비루스는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나오면 인차 죽는 성질을 가지고있다.

전염원은 앓고있는 환자이며 보균자는 없다. 전염경로는 웃숨길점막(코, 목구멍)과 결막이다.

홍역비루스는 환자의 피, 눈, 코, 침 등에 있기때문에 대체로 환자와 직접 접촉할 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전염된다. 그러나 환자의 카타르(몸의 일정한 기관에서 조직은 파괴되지 않고 점막이 헐면서 부어오르는 염증)성분비물에 오염된지 얼마 안되는 물건들을 거쳐 간접적으로 감염될수도 있다.

센 전염력을 가진 홍역은 나이에 관계없이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걸릴수 있다.

이 병은 한번 앓고나면 공고한 면역이 형성되기때문에 다시 앓는 경우는 거의나 없다.

홍역은 경과에 따라서 잠복기, 전구기(카타르기), 꽃돋이기 및 회복기로 나눈다.

잠복기는 보통 9~11일이며 최소 6일, 최대 21일까지 볼수 있다.

전구기는 대체로 3~4일인데 증상을 보면 열은 37~38℃이고 머리아픔, 코물, 눈물, 눈곱, 재채기, 흰자위막충혈 등이 있으며 기분과 입맛이 없어진다. 발병되여 2~3일(피부꽃돋이 1~2일전)만에 홍역때만 볼수 있는 반점이 나타난다. 크기는 보통 좁쌀알만 하다. 돋는것과 없어지는것이 비교적 빠르기때문에 하루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일단 내렸던 열이 다시 오르면서 꽃이 돋기 시작한다.

꽃이 돋는 순서는 귀뒤, 얼굴, 몸통, 팔, 다리인데 3일이면 온몸에 다 돋는다. 그러다가 4일부터는 차례로 없어지기 시작한다.

이때 환자의 몸상태는 급격히 약해지며 나른하고 잠에 잘 들지 못한다.

홍역을 앓는 과정에 폐염을 비롯한 합병증이 오면 대단히 위험하다.

홍역폐염의 특수한 림상형인 내공이 오면 환자는 매우 중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내공이란 돋았던 꽃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41℃의 높은 열, 심한 흥분, 경련, 심한 숨가쁨 등이 나타나는것을 말하는데 이때 환자는 급성순환부전과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할수 있다.

사람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홍역을 미리막기 위해서는 중앙과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위생방역기관들에서는 전염병을 조기에 적발할수 있는 강력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행장, 항만, 국경연선지대들에서 우리 나라에 홍역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역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 갔다오는 출장자들, 외국인들에 대한 검역, 검진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의심되는 사람들에 한하여서는 철저히 21일간의 의학적감시를 받도록 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보건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위생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홍역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자그마한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제때에 보건기관에 찾아가 알려주도록 하는 사업들을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홍역을 미리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원장 박명수

홍역을 미리막기 위한 위생선전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선교구역인민병원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보행자들이 알아야 할 도로리용질서(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인것만큼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세우기 위한 사업도 인민대중자신이 주인답게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미리막고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원활성을 보장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특히 도로교통규정을 잘 알고 철저히 지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로는 보행자와 차가 다닐수 있게 닦아놓은 길이다. 도로에는 차길, 걸음길, 건늠길, 지하건늠길, 공중다리건늠길같은것이 속한다.

도로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와 차는 도로리용에서 우측통행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속도가 느린 차는 빠른 차에 양보하면서 차길 오른쪽으로 비켜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표식물이 설치되여있는 곳에서 그 표식물의 요구를 자각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지휘신호질서, 차통행질서, 보행질서, 자전거타는 질서와 같은 교통안전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보행자는 도로리용에서 다음과 같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도시도로와 고속도로에서 걸음길과 건늠길, 지하건늠길, 공중다리건늠길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야 한다. 건늠길표식선이 있는 경우 그 표식선안으로, 건늠길표식판이 설치된 경우 그 표식물로부터 좌측 7m안으로 건너가야 한다. 걸음길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가녁으로부터 1m안으로 다니며 건늠길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가 다니지 않을 때 곧바로 건너가야 한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갈 경우에는 다른 보행자의 통행과 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도로에 모여서있거나 도로시설물에 앉지 말아야 한다.

학령전어린이, 운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늙은이, 장애자는 보호자, 교양원, 보육원의 손을 잡고 다녀야 한다.

교통지휘신호를 하는 도로건늠길인 경우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건너가야 한다.

도로교통지휘신호는 차길의 사귐길, 건늠길에서 보행자와 차의 통행을 보장하는 안전안내표시이다. 도로교통지휘신호에는 교통보안원이 하는 신호와 교통안전자동신호등에 의한 신호가 있다.

보행자들은 도로교통지휘신호에 대하여 잘 알고 철저히 도로교통지휘신호대로 움직여야 한다.

본사기자

족두리풀뿌리의 약효와 그 리용

우리 나라의 여러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족두리풀은 여러해살이풀로서 뿌리의 약효가 매우 좋다. 족두리풀뿌리는 가늘고 매운맛을 가진다고 하여 세신이라고도 부른다.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세신을 여러가지 질병치료에 리용하였다. 세신의 약리작용에서 널리 알려진것은 해열작용, 진정작용, 항균작용, 항알레르기작용과 같은것이며 항비루스작용 등에 대하여서도 새롭게 밝혀졌다.

세신에 들어있는 성분들중에서 기본약리활성물질은 정유이다.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는 오랜 기간의 연구사업과정에 해당 정유성분분리방법을 확립한데 기초하여 세신정유신경통주사약을 개발함으로써 지난 시기 써오던 진통제로써는 치료가 곤난했던 말초신경계통질병 등에 대한 치료에서 혁신을 가져올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신정유신경통주사약은 허리아픔과 다리아픔이 심한 요천신경근염(좌골신경통)치료에서 지금까지 써온 진통제, 졸론 등을 리용한 치료방법에 비해 위아픔이나 뼈성김증과 같은 부작용은 전혀 없으면서 치료기일도 짧고 효능도 훨씬 높은 약물이다. 또한 3차신경통, 상박신경통, 륵간신경통, 어린이들의 이쓰기 등 말초신경계통질병치료에서도 진통효과가 매우 높다.

특히 대상포진치료효과가 아주 좋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항비루스제, 항생제, 소염진통제 병합료법으로는 치료기일이 15~30일정도 걸리는 대상포진을 세신정유신경통주사약 한가지만으로 7~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전히 치료할수 있었다.

최근에 이 주사약이 당뇨병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자료도 나오고있다.

우리의 자원과 기술에 토대하여 이룩된 약물개발성과는 인민보건실천에서 큰 은을 낼것이다.

본사기자

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미친개무리들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한다

침략자를 징벌하는것은 정당한 자위권행사

지난 2월 정세분석가들은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벌려놓으려 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의심할바없이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것이라고 예측한바 있다. 그것이 현실로 증명되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내외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불장난소동에 의해 최악의 상태에로 치닫고있다.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를 헌신짝처럼 차버린 남조선괴뢰들은 《강력대응》이니, 《단호한 응징》이니 하는따위의 호전적망발들을 랑랑 줴쳐대며 미국과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려놓고있다.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방대한 병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투입된 이번 연습에는 맞춤형억제전략을 비롯한 모험적인 핵선제타격각본들이 적용되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북남관계는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처하고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으며 오직 힘의 대결에 의한 최후의 결판만 있게 될것이라는 단호한 립장을 밝혔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북침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로서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이번에도 저들의 전쟁연습이 《방어훈련》이라고 강변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네바군축회의에서도 괴뢰외교부 2차관은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은 핵전쟁연습이 아니라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떠들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감출수 없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전형적인 공격연습, 핵시험전쟁이다. 그것은 북침선제공격기도에 맞게 미제침략군과 괴뢰군부대들의 련합 및 합동작전능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전쟁준비를 최종완성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다. 더우기 올해의 연습은 례년에 비해볼 때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지금 합동군사연습에서 벌어지는 훈련들은 우리의 전략적종심과 중요거점들에 대한 핵선제타격능력을 숙달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고있다.

이번 연습에 《북핵 및 미싸일제거》와 《북지역에서 특별민사작전》을 맡고있다고 하는 남조선미국련합사단이 참가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수심이 낮은 해안지대에서도 원만히 작전을 벌릴수 있다고 하는 미국의 연안전투함 《포트워스》호가 이번 연습에 투입된것도 특수전, 상륙훈련과 같은 공격적인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내외호전광들이 올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서 맞춤형억제전략을 새로운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이미 제46차 년례안보협의회에서 올해까지 맞춤형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호전광들은 이미 지난해에 있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당시 맞춤형억제전략을 적용하면서 그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지난 2월에는 맞춤형억제전략에 따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라는것까지 벌리였다. 그에 이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맞춤형억제전략을 새로운 작전계획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계획을 구체화, 현실화하기 위한 이런 위험한 전쟁연습을 어떻게 《방어》를 위한 훈련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방어훈련》의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북침공격연습에 광분하면서 조선반도에서 기어코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과 괴뢰군부호전광들의 흉악한 기도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고있다.

현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집이 터지는 경우 그것은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무모하게 날뛰는것을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적대세력의 광란적인 북침핵전쟁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지금껏 북남대화와 관계개선,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였다. 그러나 괴뢰들은 미국과의 련합체제가 있는 한 《합동군사연습은 계속될것》이라느니, 《련합훈련은 동맹의 주추돌》이라느니 뭐니 하며 미국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더욱 요란스럽게 감행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박차를 가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진 이상 우리가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자기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강도에게 어서 죽여주시오 하고 자기 목을 내댈 머저리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내외의 공정한 여론들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조선의 군사적대응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불은 불로 다스려야 한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괴뢰군부깡패들의 북침전쟁도발소동을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북침전쟁연습에 참가한 원쑤들의 모든 무력은 물론 남조선과 해외의 군사기지들, 백악관과 청와대를 비롯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의 멸적의 조준경안에 들어있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 령공, 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무자비한 공격으로 도발자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릴것이다.

정의의 총대, 복수의 총대는 지금 분노에 떨며 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미국과 괴뢰군부악당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선제공격은 미국과 괴뢰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의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은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 그 어떤 경고나 사전통고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개시될것이다. 우리 식의 독특한 전쟁방식, 강력한 공격수단들이 동원되게 될 선제타격으로 적들은 뼈다귀도 추리지 못할것이다.

도발자들은 지금껏 체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가장 몸서리치는 불의 세례를 예상해야 한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침략자, 도발자들을 비참한 종말의 운명에서 구원해줄수 없다.

우리의 최후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모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심 철 영

《위킬릭스》가 폭로한 매국노들의 정체

단 몇건의 자료도 숨겨진 력사의 흑막을 파헤치고 깊은 교훈을 새겨주는 경우가 있다. 최근 미국의 비밀폭로전문웨브싸이트인 《위킬릭스》가 공개한 남조선괴뢰들의 대미외교관련 전보문자료들이 시사하는바는 크다.

이번의 전보문공개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산 소고기수입협상과 관련한 전 괴뢰대통령 리명박역도와 그 일당의 더러운 대미굴종적자세가 다시금 확증되였다.

지난 2006년부터 남조선에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수입하려는 당국의 책동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였다. 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그런데 리명박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지 얼마 안되여 미국과의 소고기수입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되였다. 남조선 각계에서 분노와 항의기운이 고조되자 괴뢰당국은 이전 《정권》이 합의한것을 《설겆이한것일뿐》이라고 아닌보살하였다.

최근에도 리명박역도는 《회고록》이라는데서 이전 로무현《정부》가 미국과의 소고기수입협상에서 리면합의를 했다고 썼다. 그런데 《위킬릭스》가 공개한 외교전보문에 의하면 2007년 6월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리명박은 미국대사앞에서 《남조선산소는 미국산 사료를 먹기때문에 진정한 남조선산이 아니며 남조선산 소고기를 지키라고 주장하는것은 무의미하다.》고 씨벌여댔다. 그후에도 미국대사와 비공개로 만나 《기자들이 없기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할수 있다. 미국산 소고기는 맛있고 눅기때문에 좋다.》고 역겨운 아양을 떨었다. 그뿐이 아니다.

2008년 1월 18일부 전보문에 의해 리명박역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고있던 최시중과 현인택이 미국대사에게 역도의 첫 미국행각전에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재개할것을 약속한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2008년 6월 26일부 전보문에 의해 당시 리명박《정권》의 외교통상부 장관이 《소고기협상이 실행되도록 미국측이 도와준데 대해 〈대통령〉은 감사해하고있다.》고 말했다는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저들은 미국산 소고기수입재개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떠벌이던 리명박패당의 변명이 새빨간 거짓말이였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전보문들에는 리명박역도가 이미 《대통령》후보시절에 벌써 《로무현〈정권〉은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민중의 불만을 리용할것이다. 미국은 협상에 주의해야 한다.》, 《얼마 되지 않는 축산업자와 귤재배자를 위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을 포기할수 없다.》고 떠벌인 사실들도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역도가 상전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수천만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도 서슴없이 팔아먹은 미국의 너절한 충견이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친미사대에 환장한 추악한 매국노 리명박역도의 정체를 폭로해주는 자료들은 이외에도 많다. 리명박이 집권한 직후인 2008년 5월 리상득이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역도에 대해 《뼈속까지 친미, 친일이기때문에 그에 대해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는 외교전보문의 자료는 그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위킬릭스》가 공개한 문건들은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고 매국과 굴종으로 권력을 유지해가는 괴뢰집권세력의 생리를 충분히 엿볼수 있게 한다.

현 괴뢰당국자들도 친미역적인 리명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집권하자마자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제창해온 현 괴뢰집권세력은 2015년으로 계획되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장하는 쓸개빠진 놀음을 벌려놓았다. 최근에는 우리 겨레는 물론 주변나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비밀리에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를 끌어들일 흉계를 꾸미면서 민족의 리익을 해치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북남관계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가자고 해도 그렇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자고 해도 민족의 리익을 팔아 외세의 배를 불리여주는 남조선의 매국노들을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본사기자 은 정 철

권력의 시녀들의 비루한 추태

지금 괴뢰패당이 5일 서울에서 일어난 한 시민단체대표의 미국대사에 대한 징벌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보려고 지랄발광하고있다. 박근혜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라.》는 지령에 따라 괴뢰패당은 안전보장회의니 뭐니 하는것을 련이어 열어놓고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배후조사소동에 광분하고있다. 괴뢰통일부 대변인,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엊그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올라앉은 리병기 등이 줄줄이 나서서 우리가 이번 사건을 미국에 대한 정의의 징벌로, 민심의 항거로 보도한것을 놓고 《테로행위에 대한 두둔》, 《사건의 본질에 대한 외곡날조》, 《스스로 테로 및 반인권집단임을 자인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고아대며 《근본적대책》, 《철저한 조사》, 《배후세력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력설하고있다. 《새누리당》것들 역시 《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눈 끔찍한 사건》, 《종북주의자의 소행》으로 몰아대다 못해 《북과의 사상적련계가능성》을 운운하며 이번 사건을 우리와 결부시켜보려는 심보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더욱 가관은 권력의 시녀인 괴뢰검찰이 박근혜의 지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기 위해 짜맞추기수사놀음을 벌려놓고있는것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주요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습격행위는 명백히 테로》라고 단정한 괴뢰검찰은 6일 그 무슨 《특별수사팀》이라는것을 구성하고 여기에 괴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의 검사자원을 인입시켰다.

남조선의 《CBS》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테로》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아직까지의 정황만으로는 《테로》로 단정하기 힘들뿐아니라 《테로》가 맞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는것은 합당치 않다고 그 부당성을 까밝히고있다.

남조선의 법률학자들도 이 문제를 랭철하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박경신은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수사관들이 《테로행위라고 유죄를 이미 예정한 말을 하는것은 피의사실공표죄조항 위반》이며 《그자체가 여론재판의 씨가 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해야지 여기에 그 어떤 정치적의미나 외교적의미를 담아 대외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까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검찰은 《테로사건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느니, 《엽적근거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대테로수사를 해야 한다.》느니 하고 고아대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더우기 미국대사에게 칼세례를 안긴 김기종이 지난 시기 우리 공화국을 일곱차례 방문한 전적이 있으며 1999년에 금강산관광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 리념적테로라는 판단을 내릴수 있다.》고 력점을 찍고 짜맞추기를 하고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김기종의 징벌을 미국과 괴뢰패당의 전쟁연습이 빚어낸 결과라고 평하고있고 미국의 정부 역시 《돌출적인 개별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 CNN방송 등 주요언론들도 《테로가 아닌 공격이나 폭력》으로 전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하다면 박근혜패당이 왜 이번 사건을 우리와 결부시키지 못해 몸살을 앓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괴뢰패당이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의 소행》으로 몰아 우리와 억지로 련계시켜 저들이 당한 국제적망신과 수치를 모면하는 한편 이 기회에 통일운동세력을 기어이 말살하고 우리에게 《테로》의 모자를 씌워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더욱더 매달려보려는데 그 악랄한 기도가 깔려있다. 더우기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재지정놀음에 부채질하고 미국상전과의 결탁을 한층 강화하려는 음흉한 속심도 깔려있다.

속담에 지랄병에 목침이 약이라는 말이 있다. 친미사대, 반통일대결에 환장이 된 미친개무리들은 저들의 비루한 망동이 결코 용서받을수 없는 죄악임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극악한 반통일체제대결모략기구인 괴뢰통일준비위원회는 당장 해체되여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괴뢰패당이 미국과 결탁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북침전쟁책동과 체제대결모략소동에 광분하는 속에 괴뢰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전담하여 연구하고 준비하는 모략기구라는 사실이 폭로되여 남조선 각계층과 온 겨레의 격분을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지난 10일 괴뢰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욱이라는자는 그 무슨 조찬토론회라는데 출연하여 저들의 《통일준비위원회》내에 《비합의통일이나 체제통일을 위한 팀》이 있는 사실을 공언하면서 비공개리에 《남북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을 준비하고있으며 《정부》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통일》을 연구하고있는데 대해 실토하였다.

지어는 《체제흡수방식의 통일시 성분이 다양한 북의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지난 시기 괴뢰패당이 입만 벌리면 《체제통일》이요, 《흡수통일》이요 뭐요 하는것을 지껄여댔지만 이번에 정종욱놈처럼 그 모략적내막을 공공연히 드러낸것은 처음이다.

하기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남조선내부가 발칵 뒤집히다싶이 하고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 언론,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것》이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즉각 해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가 하면 남조선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 통일협회는 즉시 《통일준비위원회》의 시민자문단탈퇴를 선언하였다.

진보적인 투쟁단체들은 박근혜의 《통일정책》이 이전 독재자들의 《멸공통일》, 《흡수통일론》이라고 격분에 넘쳐 규탄단죄하고있다.

지어 통일부를 비롯한 괴뢰당국자들과 《새누리당》것들까지도 저들의 불순한 속심이 들통난데 당황망조하여 《흡수통일준비팀》의 존재를 토설한 정종욱과 괴뢰청와대에 대해 《아마츄어》니 뭐니 하고 비난하는데 이르렀다.

남조선 각계가 온통 끓어번지는데 바빠맞은 괴뢰청와대와 《통일준비위원회》패거리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한편 정종욱놈을 다시 언론에 내세워 《흡수통일준비팀이 존재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며 그 파국적후과를 모면해보려고 철면피하게 놀아대였다.

하지만 엎지른 물 다시 담을수 없듯이 이미 내뱉은 말을 다시 주어담을수 없는 법이다.

문제의 《통일준비위원회》로 말하면 지난해 7월 박근혜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구상》의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의 청사진》과 《통일헌법》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괴뢰통일부, 외교부, 정보원, 법무부, 《국회》 등 당국과 정치권,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내온 《대통령》직속기구로서 그 위원장도 박근혜이다.

정종욱놈의 이번 실토로 괴뢰패당이 조작해낸 《통일준비위원회》라는것이 그 무슨 《신뢰조성》과 《교류협력》,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철두철미 《흡수통일》모략기구이며 흉악한 체제대결의 망상을 추구하는 대결의 돌격대라는것이 만천하에 더욱 여지없이 폭로되였다.

뿐만아니라 괴뢰패당이 운운하는 《통일준비》란 체제대결, 《흡수통일》준비이며 박근혜의 《신뢰》니, 《대화》니 뭐니 하는것들이 다 완전한 허위기만이라는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력대 괴뢰통치배들치고 체제대결, 《흡수통일》망상을 꿈꾸지 않은자가 없지만 현 괴뢰패당처럼 당국과 정치권, 민간을 망라한 《흡수통일준비팀》까지 조작하여 체제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뛴 극악한 반통일대결광신자는 없었다.

안팎이 다르고 속에 동족대결의 칼을 품은 괴뢰패당이 《대화》와 《신뢰》, 《관계개선》에 대해 떠드는것이야말로 우리와 남조선민심과 내외여론, 온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연습책동을 벌리면서 그에 항거하여 미국대사놈을 응당하게 징벌한 남조선의 주민에게 《테로》니, 《종북》이니 하는 갑투를 씌우며 파쑈폭압에 미쳐날뛰는가 하면 징벌사건을 얼토당토않게 우리와 련결시키면서 반공화국대결모략소동에 더욱더 매달리고있다.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미국상전의 사타구니에 붙어돌아가며 역겹게 놀아대면서 아부굴종하는 쓸개빠진자들, 미국이 없이는 한순간도 명줄을 부지 못하는 식민지주구에 불과한 괴뢰패당따위가 감히 신성하고 존엄높은 우리 체제를 넘겨다보며 《체제통일》이니, 《흡수통일》이니 하는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가소로운 광란이 아닐수 없다.

괴뢰패당이 추구하는 《흡수통일》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는 미친개꿈이다.

우리가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것은 결코 통일의 다른 형식과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며 또 그럴 힘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괴뢰패당이 무모한 체제대결에 계속 나선다면 우리는 우리식의 방식으로 통일대전에 나설것이다.

박근혜는 《통일준비위원회》 수장으로서 온 민족앞에 이번 망발에 대해 명백히 책임적인 해명을 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극악한 반통일체제대결모략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당장 해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과 상종조차 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주체104(2015)년 3월 14일
평 양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 남아메리카국가동맹 총서기가 6일 베네수엘라 방문과정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간섭책동을 배격하는 동맹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내정간섭책동을 증명해주는 자료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동맹의 모든 성원국들은 베네수엘라의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라틴아메리카의회 의장이 5일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과의 회견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반대하는 선전깜빠니야에 정치적 및 재정적지원을 아끼지 않고있으며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이 나라를 걸고드는 60여차례의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까밝혔다. 이것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내정에 대한 간섭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 까리브지역나라 로동상회의가 3일과 4일 바하마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지역나라들에서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으며 특히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데 대해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그들은 또한 소년로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쎄르게이 나리슈낀이 최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목적을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취하고있는 대로씨야경제제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있는 사건들과 이 나라가 겪고있는 위기와 관련한 저들의 죄과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부터 취해진것이라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한 미국의 죄과는 실재적인것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알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제재정책은 법규범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경제적위협이라고 그는 단죄하였다.

한편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최근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인권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유엔인권리사회를 비롯한 여러 인권기구들이 중동지역에서의 인권 및 국제인도주의법규범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거나 대결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란의 군사력시위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얼마전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의 군사연습이 진행되였다.

연습시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의 쾌속정들에서 발사된 미싸일들이 거대한 목표물을 타격하였다.

이 연습은 세계여론의 남다른 관심을 끌었는데 그것은 공격대상으로 된 목표물이 미항공모함을 가상한것이였기때문이다.

전해진데 의하면 이란해군이 미국함선을 가상한 목표물을 상대로 연습을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군사전략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고있는 해협에서 이란이 미항공모함을 대상으로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최근 이란의 핵활동과 관련하여 두 나라사이에는 외교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미국은 협상과 제재라는 두가지 카드를 다 내들고 이란이 오랜 기간 고수해온 평화적핵활동권리를 포기할것을 강박하고있다. 핵관련회담이 진행되고있는 속에서 미국은 새로운 대이란제재를 추가로 발표하였는가 하면 이란을 로씨야, 중국 등과 함께 군사적경쟁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태도에서 량면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란과의 핵협상을 위해 그 무슨 《자제》와 《인내성》을 운운하면서도 《탁우에 모든 선택안을 계속 남겨두고있다.》느니,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만족스러운 합의가 이룩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협상에서 탈퇴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위협하고있다. 이란이 저들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은 명백하다. 《대량살상무기검증》이라는 명분밑에 대통령궁전까지 다 뒤져보고나서 이라크를 침략했던것처럼 《핵활동의 투명성》을 구실로 이란을 굴복시켜보자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미국이 추구하는 《협상》이라는것은 외교적회유와 제재라는 두가지 전술로 이란의 양보를 얻어내고 더 나아가서 이란을 완전무장해제시켜 《무혈입성》을 이루어보자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제연구쎈터의 책임자는 이란과 미국사이의 접촉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미국이 이란이슬람공화국정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최종목적은 《이란의 정권교체》라고 폭로하였다.

하지만 이란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립장이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카메네이는 어느 한 연설에서 만일 이란이 자기의 핵활동을 중지하는데 동의한다면 도리여 미국은 더 많은 요구조건들을 내놓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는 앞으로도 이란이 자기의 평화적핵활동에 필요한 핵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에 압력을 가하는것은 무의미하며 압력뿐아니라 제재도 량측에 다 손해로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이란의 한 고위관리는 서방이 이란에 제멋대로 제재를 가하고있지만 이란이 자기의 원칙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리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이란외무상은 오바마가 《테헤란은 적어도 10년동안 벌려온 자체의 민감한 핵활동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배격하면서 이란은 부당하고도 리치에 맞지 않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오랜 기간 미국과의 대결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해온 이란정부와 인민의 투철한 의지의 반영이고 대미정책의 원칙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자국의 주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조건에서 핵활동과 관련한 대화와 협상은 있지만 제재와 압력을 비롯한 위협공갈로는 그 무엇도 얻을것이 없다는것이 이란의 립장이다.

미항공모함을 가상한 군사연습을 진행한 사실이 이란의 강경립장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연습과정을 록화한 보도물을 방영하면서 이란TV방송은 《미국인들이 페르샤만수역에 수장될것을 바란다면 그렇게 해줄것이다.》라고 밝혔다.

연습과 관련하여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총사령관은 미국을 념두에 두고 제멋대로 마구 돌아치는 적들에게 암시를 보냈다고 강조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해군사령관은 최근의 군사연습에서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가 사용한 신형무기에 대해 밝히면서 이 새로운 전략무기는 이란이 현대적인 최신형무기를 생산할수 있는 정밀기술을 소유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모든 사실은 이란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과의 협상에도 대결에도 당당하게 맞서고있다는것을 립증해준다.

미국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나라들을 굴복시킬수 없다.

본사기자 리 철 혁

심각한 피난민문제

나이제리아에서 최근 피난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3일 유엔이 밝힌데 의하면 계속되는 무장분쟁으로 최근 며칠동안에 이 나라의 동북부지역에서만도 약 1만 6 000명의 피난민들이 발생하였다.

일본에서 반핵시위

반테로협조주장

요르단국왕 아브둘라흐2세와 쿠웨이트추장 사바흐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흐가 최근 회담석상에서 아랍나라들이 반테로투쟁에서 협조를 강화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모든 아랍나라들과 이슬람교도들이 굳게 단결하여 테로와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슬람교는 극단주의사상조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종교단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집요한 현행법개정책동

일본반동들이 최근 재침야망을 실현하는데 장애로 되고있는 현행법을 뜯어고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6일 자민당과 공명당이 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무력에 《집단적자위권》을 부여할데 대한 내각결의안을 승인하였다.

일본을 침략전쟁에 뛰여들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위험한 책동은 국내외에서 강력한 항의와 비난을 받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51042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